

碩 士 學 位 論 文

에스닉 패션과 메이크업의
유형별 특성에 관한 연구

- 2001년~2005년 밀라노, 뉴욕 컬렉션 비교분석 -

2 0 0 6 年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패션디자인기획學科

패션디자인專攻

吳 世 姬

碩 士 學 位 論 文

指導教授 崔 海 珠

에스닉 패션과 메이크업의 유형별 특성에 관한 연구

- 2001년~2005년 밀라노, 뉴욕 컬렉션 비교분석 -

A Study on the Typical Characteristics of
Ethnic Fashion and Makeup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Milano and NewYork
Prêt-à-Porter Collections 2001~2005-

2006年 6月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패션디자인기획學科

패션디자인專攻

吳 世 姬

碩 士 學 位 論 文

指導教授 崔 海 珠

에스닉 패션과 메이크업의 유형별 특성에 관한 연구

- 2001년~2005년 밀라노, 뉴욕 컬렉션 비교분석 -

A Study on the Typical Characteristics of
Ethnic Fashion and Makeup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Milano and NewYork
Prêt-à-Porter Collections 2001~2005-

위 論文을 衣裳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6年 6月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패션디자인기획學科

패션디자인專攻

吳 世 姬

吳世姬의 衣裳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定함

2006年 6月

심사 위원장 (인)

심 사 위 원 (인)

심 사 위 원 (인)

감사의 글

힘든 결심과 함께 시작한 늦은 공부의 기간동안 마치 오래전에 지나간 시간을 다시 맞이하는 듯 설레고 있는 저를 볼 수 있었고, 그러기에 더욱 뜨거운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채워갔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마무리의 시간이 되었고, 지금 이 순간 대학원에 첫발을 내딛었을 때의 기억이 돌아옵니다.

막연하고 어려워 피하고 싶은 저에게 용기와 힘을 실어준 가족들. 그들의 따뜻한 힘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결실은 결코 없었을 듯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너무 부족한 저에게 논문을 지도해주신 최해주 지도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논문을 꼼꼼히 살펴주시고, 보완해주시며 심사를 해주신 양미경 교수님과 김용주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정 때문에 어떻게 할지 걱정하고 고민스러울 때 논문을 도와주고 힘이 되어준 장윤이 선생님, 자료를 도와준 범녕과 작품을 도와준 김혜정, 박혜정 선생님께도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분신이기도한 수빈아카데미 가족들에게, 사랑합니다. 그리고 늘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행복을 기원하며..

국 문 초 록

다변화된 사회와 매체의 발달에 따라 자연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인간 본성이 나타나고 다른 문화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면서, 토털 패션의 미적 기준에 주류를 이루던 서양 중심의 문화는 그 기준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렇듯 변화된 기준의 하나로 오늘날 각광 받고 있는 것이 에스닉의 개념이다.

에스닉 패션은 자국민이나 자민족에서 볼 수 없는 타민족이나 타국의 풍물과 정서를 동경함으로서 서양 중심의 현대 복식에 비서양 지역의 전통 복식의 특징과 요소를 표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에스닉 패션에 관한 개념을 고찰하고 에스닉 패션을 유형별로 분석하였으며, 2001년 S/S부터 2005년 F/W까지 밀라노와 뉴욕에서 열린 프레타 포르테 컬렉션 작품 중 에스닉 스타일의 총 267 작품을 분석하여 시즌별, 컬렉션별 에스닉 패션의 유형별 변화추이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컬렉션에서 에스닉 패션과 함께 연출된 메이크업을 유형별로 분석하였으며, 이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에스닉 패션을 표현하는 예술적 이미지 표현의 한 형태로서의 메이크업 작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프리카, 인도, 아메리칸 인디언, 일본, 잉카, 중국의 여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에스닉 패션 유형 중, 아프리카풍의 작품이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아메리칸 인디언, 일본, 인도, 중국, 잉카 유형의 순이었다. 에스닉 패션은 F/W시즌보다는 S/S시즌에 많이 소개되고 있었으며 S/S시즌에는 아프리카풍이, F/W시즌에는 인도풍의 작품이 가장 많이 소개되고 있었다.

밀라노와 뉴욕의 컬렉션을 비교해보면, 시크하고 실용적인 작품을 주로 선보이는 뉴욕 컬렉션보다는 패션과 예술작품의 조화를 표현하고 있는 밀라노

컬렉션에서 월등히 많은 비중의 에스닉 작품이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둘째, 컬렉션에서 패션을 더욱 돋보이게 표현하는 장식으로 사용되는 메이크업은 패션과 함께 에스닉한 이미지로 표현되기보다는 디자이너의 컬렉션 전반을 구성하는 패션과 어울리는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표현기법에 따라 스모키(Smoky) 메이크업, 소프트 스모키(Soft Smoky) 메이크업, 레트로(Retro) 메이크업, 아방가르드(Avant-garde) 메이크업, 내추럴(Natural) 메이크업, 오리엔탈(Oriental) 메이크업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컬렉션에서는 소프트 스모키 메이크업과 스모키 메이크업이 다른 기법에 비해 월등하게 큰 비중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스모키 메이크업으로 분류되는 이미지를 내추럴 메이크업에 가까운 소프트 스모키 메이크업과 강하고 깊은 눈매를 강조하는 스모키 메이크업으로 분류하여, 앞으로 컬렉션이나 일상생활의 패션과 함께 연출될 수 있는 스모키 메이크업의 두 가지 기법을 처음으로 제안하였다.

셋째,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부각되고 있는 에스닉 유형의 패션을 선보이는 컬렉션에서 에스닉 패션을 더욱 돋보이게 장식해 줄 메이크업의 일환으로, 소프트 스모키 메이크업과 스모키 메이크업 그리고 에스닉한 느낌을 패션 외에도 메이크업으로 표현하여 에스닉한 이미지를 더욱 강조하는 방법으로 중국, 일본, 인도, 아프리카, 아메리칸 인디언, 잉카의 각 유형별 메이크업 작품을 표현하여 보다 생동감 있는 컬렉션 무대에 사용될 수 있는 메이크업 아이디어로 제시하였다.

앞으로 시즌별 국내외 컬렉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보다 넓은 범위의 자료 확보를 통해 앞으로의 컬렉션 경향을 예측하고, 토털패션으로서의 패션과 메이크업의 연관관계가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목 차

국문초록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 방법 및 범위	2
II. 에스닉 패션과 메이크업	5
1. 에스닉 패션	5
2. 에스닉 메이크업	9
3. 에스닉 패션과 메이크업의 유형	13
III. 에스닉 패션과 메이크업의 유형별 특성	26
1. 에스닉 패션의 유형 특성	26
2. 에스닉 메이크업의 표현기법 유형 특성	50
IV. 에스닉 메이크업의 제안	59
1. 제안 의도	59
2. 작품 제시	60
V. 결론	76
참고문헌	78
ABSTRACT	81

표목차

[표 1] 에스닉 패션과 메이크업의 유형	13
[표 2] 메이크업 표현기법	25
[표 3] 에스닉 패션 유형의 변화추이	27
[표 4] 에스닉 패션 유형의 컬렉션/시즌별 변화추이	28
[표 5] 시즌별 에스닉 패션 유형 특성과 디자이너	33
[표 6] 컬렉션별 에스닉 패션 유형 특성과 디자이너	45
[표 7] 에스닉 패션 유형별 디자인 작품과 디자이너	47
[표 8] 에스닉 패션 유형별 메이크업 표현기법	51
[표 9] 시즌별 메이크업 유형분포	55
[표10] 컬렉션 지역별 메이크업 유형분포	56

그림과 사진 목차

[그림 1] 논문의 구성	4
[사진 1] 중국의 전통복식과 메이크업	14
[사진 2] 일본의 전통복식과 메이크업	16
[사진 3] 인도의 전통복식과 메이크업	17
[사진 4] 아프리카의 전통복식과 메이크업	18
[사진 5] 아메리칸 인디언의 전통복식과 메이크업	20
[사진 6] 잉카의 전통복식과 메이크업	21
[사진 7] 에스닉 스타일을 주로 선보인 디자이너와 작품	31
[사진 8] 2001 S/S 시즌 대표적인 에스닉 패션 유형의 작품	35
[사진 9] 2001 F/W 시즌 대표적인 에스닉 패션 유형의 작품	36
[사진 10] 2002 S/S 시즌 대표적인 에스닉 패션 유형의 작품	37
[사진 11] 2002 F/W 시즌 대표적인 에스닉 패션 유형의 작품	38
[사진 12] 2003 S/S 시즌 대표적인 에스닉 패션 유형의 작품	39
[사진 13] 2003 F/W 시즌 대표적인 에스닉 패션 유형의 작품	40
[사진 14] 2004 S/S 시즌 대표적인 에스닉 패션 유형의 작품	41
[사진 15] 2004 F/W 시즌 대표적인 에스닉 패션 유형의 작품	42
[사진 16] 2005 S/S 시즌 대표적인 에스닉 패션 유형의 작품	43
[사진 17] 2005 F/W 시즌 대표적인 에스닉 패션 유형의 작품	44
[사진 18] 스모키 메이크업	52
[사진 19] 소프트 스모키 메이크업	52
[사진 20] 내추럴, 레트로, 아방가르드, 오리엔탈 메이크업	53
[사진 21] 밀라노 컬렉션의 메이크업	56
[사진 22] 뉴욕 컬렉션의 메이크업	57
[사진 23] 작품1-스모키 메이크업	61
[사진 24] 작품2-소프트 스모키 메이크업	63
[사진 25] 작품3-에스닉 메이크업(중국)	65
[사진 26] 작품4-에스닉 메이크업(일본)	67

[사진 27] 작품5-에스닉 메이크업(인도)	69
[사진 28] 작품6-에스닉 메이크업(아프리카)	71
[사진 29] 작품7-에스닉 메이크업(아메리칸 인디언)	73
[사진 30] 작품8-에스닉 메이크업(잉카)	75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현대사회는 과학과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전 세계의 문화와 정보가 쉽게 전파됨에 따라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응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면서 타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왔다.

패션의 경우 기계기술의 발전으로 기성복의 대량생산과 함께 전 세계로 급속히 보급된 서양복식의 획일적인 스타일에 대한 반동적인 표현으로 각 민족의 독특한 역사를 느낄 수 있는 민족 지향적 복식이 나타났다¹⁾. 이국적 민족복 재현의 근원은 1960년대 말 히피 문화의 영향으로 시작되었으며²⁾, 1970년대에 이르러 민족복식이 본격적인 패션의 주제로 자리 잡게 되었고³⁾, 1990년대 이후에는 타국의 전통적인 요소가 가미된 민속풍 의상이 예술적 감각으로 승화되어 세계 패션시장을 장식하며 보다 복잡적이고 다중화된 패션을 창조하고 있다.

다국적 경향의 에스닉 스타일(ethnic style, 민속풍)은 패션뿐 아니라 인테리어, 액세서리, 영화, 음식 등에 까지 다양한 분위기가 믹스, 매치되어 나타나고 중요한 트렌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⁴⁾.

또한 패션과 함께 메이크업도 종교, 정치, 경제, 사상, 철학, 풍습 등의 사회적 조건과 민족의 피부색, 기후, 풍토 등의 자연조건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 즉,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서 메이크업은 그 시대와 지역의 문화를 반영하면서 발전하여 왔다.

패션 메이크업은 메이크업에 패션성, 유행의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단순히

1) 최해주.안은경(2003), 국내 복고주의 패션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 제 53권 2호, p.141

2) 박중희(1995), 1990년대 패션에 나타난 복고풍에 관한 고찰-1960년대 mode의 재현을 중심으로-, 계명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김종복(1968), *Fashion Word Collection Vol.2*, 서울:도서출판 시대, p.102

4) 최영옥(2005), 현대 에스닉 패션(Ethnic Fashion)의 특성 분석, 한국의류산업 학회지, 제7권 5호, p.481

얼굴만 아름답게 꾸미는 차원이 아니라 의상, 헤어스타일, 액세서리, 잡화 등 토털 패션의 요소로서 자신의 가치관, 기호, 상황 등을 표현하는 도구이며, 자신이 속한 사회, 문화와의 교류를 의미하는 차원으로 확대시킨 개념이다⁵⁾.

에스닉 스타일이 중요한 트렌드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닉 패션과 메이크업의 유형별 자료가 미비하고 패션과 메이크업을 관련지은 연구가 부족하므로 에스닉 패션과 메이크업을 관련지어 유형별 특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에스닉 패션과 메이크업의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고 에스닉 패션의 유형에 따른 메이크업 표현방법을 개발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본 연구의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에스닉 패션과 메이크업에 관한 개념을 파악하고 에스닉 패션과 메이크업을 유형별로 분석한다.

둘째, 2001년 S/S부터 2005년 F/W까지 에스닉 패션의 변화 추이와 시즌별, 컬렉션 발표 지역별, 유형별 에스닉 패션 추이를 살펴본다.

셋째, 에스닉 패션 유형에 따른 메이크업 표현방법을 분석한다.

넷째, 위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에스닉 이미지의 메이크업 작품제안을 통해, 에스닉 패션과 조화를 이루는 메이크업 방법과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론적인 연구와 실증적인 연구를 병행하였다. 이론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국내·외 단행본과 간행물 및 학회지와 연구논문을 통해 선행 연구를 고찰하였다. 실증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컬렉션에 발표된 패션 디자이너의 작품을 통한 시각적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보그(Vogue Italy), 팜(FEM)등과 같은 국내·외 패션 전문 잡지의 밀라노와 뉴욕의 프레타 포르테 컬렉션 사진, 케이블 TV(동아TV), 인터넷

5) 최은지(2000), 아방가르드 패션을 위한 메이크업 연구,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

(www.firstview.com, www.cft.or.kr) 등을 검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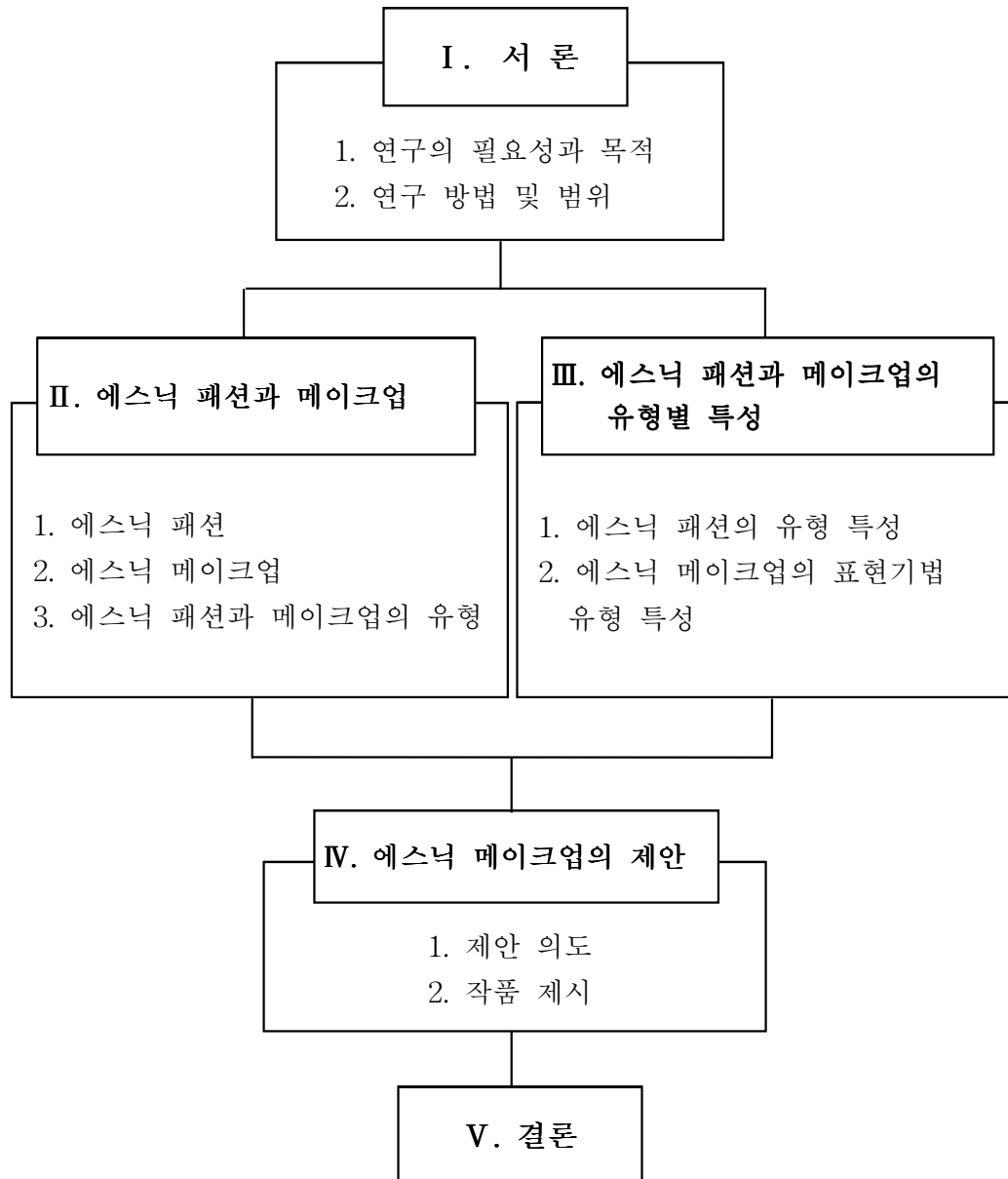
컬렉션 개최지역의 선정은 파리, 런던, 밀라노, 뉴욕, 도쿄의 세계 5대 컬렉션 중, 세계 패션을 주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두 도시인 유럽의 밀라노와 미국의 뉴욕, 두 곳을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여 컬렉션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범위는 2001년 S/S 부터 2005년 F/W까지 5년간 밀라노와 뉴욕의 각 10회 컬렉션씩, 총 20회의 컬렉션으로 제한하였다.

참고문헌을 통한 이론적 고찰과 함께 밀라노, 뉴욕 컬렉션의 패션 디자인을 대상으로 시각자료의 색상, 소재, 디테일 분석을 통해 에스닉 스타일의 패션작품 총 267 디자인을 선정하였으며, 에스닉 스타일의 패션 작품에 표현된 메이크업 기법을 분석하였다.

분석 내용은 빈도와 백분율 분석 등을 통해 에스닉 패션과 메이크업의 유형분석, 년도별 변화추이, 시즌별, 컬렉션 지역별 에스닉 패션의 특성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논문의 구성

II. 에스닉 패션과 메이크업

1. 에스닉 (ethnic) 패션

1) 에스닉 패션의 개념

에스닉(ethnic:민속풍)이란 라틴어 ethnicus와 그리스어의 ethnikos에서 유래된 단어로, 사전적 의미로 ‘민족의’, ‘종족의’ 또는 ‘민족 특유의’ 라는 의미의 형용사이며, ‘민족의’라는 뜻 외에도 ‘이교도의’라는 의미가 담겨있다⁶⁾. 특히, 아프리카, 중근동, 중남미, 중앙아시아, 몽고 등의 스타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비기독교권 즉, 이슬람교, 불교, 기타의 종교를 갖는 지역의 민족의상이 갖는 독특한 색이나 소재, 수공예적인 디테일 등으로 프리미티브한 경향이 보이는 것을 에스닉이라고 한다⁷⁾.

에스닉 패션이란 이국적인 이미지들에서 얻어지는 각 민족 고유의 의상과 염색, 직물, 패턴, 자수, 액세서리 등의 각종 모티브와 디자인, 소재, 색상 등을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20세기 뿔 뾰와레(Paul Poiret)의 작업에서 동양 취미가 강한 에스닉 룩을 보인 후 1970년대 후반 많은 디자이너에 의해 여러 가지 에스닉 룩이 발표되었다⁸⁾. 이러한 다른 나라의 매력적인 요소를 표현하는 에스닉 이미지는 급속히 변화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도시문명의 발달하지 않은 이국적인 이미지의 전원이거나 미개발국의 이미지를 표현하여 도시 생활에서 활력을 찾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⁹⁾.

에스닉 패션은 각 지역의 전통적인 특성에 따라 분류된다. 중근동에서 터키·이집트·페르시아·인도·한국·중국·일본 등 동양의 신비롭고 독특한 풍속을 모티브로 하는 디자인과¹⁰⁾, 적도 부근의 열대지방이나 남아메리카 지

6) 두산동아편집부(2006), 동아프라임영한사전, 서울:(주)두산동아, p.878

7) 이상례(1994), 현대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동방풍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1

8) 라사라패션 편집부(2002), 패션용어사전, 서울:라사라패션정보, p.48

9) 서봉하(2004), 1990년대 이후 에스닉 룩의 폐쇄형과 개방형의 시지각적 연구, 한국복식학회, 제54권 4호, p.151

역에서 볼 수 있는 원색적인 색감과 장신구 등을 모티브로 활용하는 디자인, 남태평양, 카리브해 제도,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등의 열대지방의 강렬한 색채와 특유한 식물의 잎이나 꽃무늬를 모티브로 응용하는 디자인¹¹⁾, 유럽 지방의 농민 의상, 깃털과 가죽을 이용한 아메리칸 인디언의 의상 등 대자연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갖는 소박하고 전원적인 이미지를 모티브로 하는 디자인¹²⁾이 그것이다.

따라서 에스닉 패션은 특정지역의 전통적인 패션에 대한 타국의 문화적 호기심에서 시작되어, 각박하고 발달된 현대사회의 메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원초적인 아름다움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인간 본성에 따라 현대 패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2) 에스닉 패션의 전개

세계 각 지역의 문화권마다 전통복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패션은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단순화, 대중화와 더불어 대중매체에 의해 국제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20세기 후반부터 이러한 형식주의적이며 합리적인 모더니즘에서 벗어나 개방성, 다양성, 개성이 존중되는 다원주의 사회로 변화되면서 다른 시대, 다른 문화로부터 양식과 이미지를 차용하여 종합하려는 포스트모더니즘¹³⁾적인 양상이 복식에서도 본격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따라서 서양 이외의 제 3 세계권으로 관심이 모아짐에 따라 그 전까지는 부각되지 않았던 동양지역과 아프리카 등의 다른 대륙의 민족적 특성이 갖는 전통성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이러한 관심을 서양복식의 주제로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민속풍, 즉 에스닉 이미지의 복식 스타일이 현대패션의 주제로 등장하고 있음은 역사주의와 현대주의를 함께 표현한 것으로 포스트모더

10) 정삼호·김영숙(1998), 현대 패션모드, 서울:교문사, p.126

11) 공미란·안인숙(2003), 패션디자인, 서울:예학사, pp.146~147

12) 정홍숙·정삼호·홍병숙(1998), 현대인과 의상, 서울:교문사, pp.112~113

13)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20세기의 모더니즘에 대항하여 1970년대에 일어난 예술운동으로 고전적, 역사적 양식이나 기법을 받아들이고자 함, 동아프라이미영한사전(2006), 서울:(주)두산동아, p.2040

니즘의 한 경향으로 볼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절충주의적 특성을 반영하는 에스닉은 자국민이나 자민족에서 볼 수 없는 타민족이나 타국의 풍물과 정서를 동경함으로서 서양 중심의 현대 복식에 비서양 지역의 전통 복식의 특징과 요소를 표현한 것이다. 이와 같이 서양복식에 나타난 에스닉은 서구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포스트모더니즘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제3국의 복식형태를 현대복식에 재창조 하는 것이 그 발생 배경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¹⁴⁾.

이와 같이 패션의 큰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는 에스닉은 20세기 후반 본격적으로 복식에 사용되기 이전인 18세기를 그 등장의 첫 시기로 볼 수 있으며 시대에 따라 의미와 용어의 변화과정을 겪었는데 그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세기경 낭만주의시대에 유럽각지의 상류층 사람들에게서 예술의 주제로 시느와즈리(Chinoiserie-중국풍)나 튀르크리(Turquerie-터키풍) 등의 이국취향이 즐겨 다뤄지면서 오리엔탈리즘이 부각되기 시작하였고¹⁵⁾ 이것이 현재 에스닉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이후 20세기 초 러시아 발레 공연을 위해 제작된 레온 박스트(Leon Bakst)가 디자인한 동양풍의 발레 의상은 패션계에 새로운 충격을 주었고 한편으로는 유행되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디자이너 뽀 뽀와레는 박스트의 작품에서 깊은 감명을 받고 이에 영감을 받아 동양풍의 호블(hobble)스커트, 하렘(harem)스타일, 미나레 튜닉(minaret tunic), 기모노(kimono)스타일 등 매우 혁명적인 패션 스타일을 발표하여 전 유럽에 화려한 색채와 동방풍의 소재를 유행시키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¹⁶⁾. 20세기 초의 에스닉 스타일은 고전적인 아름다움과 손때 묻지 않은 문화, 낭만적인 자극으로 가득 찬 다른 세계에의 동경으로부터 시작하여 알려지지 않은 문화에 대한 새로운 발견과 탐색으로 유럽 외의 지역에서 영감을 찾은 디자이너들의 이국적 취향에 의해 강렬한 색채와 동양적 스타일로 탄생된 것이다. 이 시기, 패션에서의 모더니즘

14) 최영옥, 전개논문, p.482

15) 채금석(1995), 현대복식미학, 서울:경춘사, p.271

16) 박성희(2006), 아프리카 에스닉 이미지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9

을 표방하여 동양의 정취를 의상에 접목시킨 뿔 뿔와레를 통해 에스닉은 다시 나타났으며¹⁷⁾ 에스닉 패션은 동서양의 패션이 접목을 통해 조화를 이룬 하이브리드 패션의 일종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에스닉 스타일은 서구 패션 디자인의 한 유형으로서 꾸준한 영향을 받아왔고, 20세기 후반에 더욱 대중들에게 어필되었다. 1960년대에는 현재의 에스닉이 포크로어(folklore)라 불리우며 크게 붐을 일으켰는데 60년대 말 히피문화의 영향으로 인도, 티벳 등의 민족의상이 주목되면서 부각되기 시작하였고¹⁸⁾ 1970년대 이브 생 로랑(Yves Saint Laurent)이 페전트(peasant)풍을, 일본 디자이너 다카다 겐조(Dakada Kenzo)가 포크로어를 컬렉션의 테마로 삼으면서 본격적으로 패션의 주제가 되기 시작하였다¹⁹⁾.

1980년대에는 포크로어보다 영역이 확대된 에스닉이 패션의 한 흐름으로 나타났는데 민족복의 미적특성을 그대로 현대 패션 디자인에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 시기에 에스닉 룩은 비서구 문명과 전통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면서 자연의 흐름과 정신에 바탕을 둔 동양의 전통복식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들로 등장하였는데 특히, 일본의 경쟁력 강화로 일본계 디자이너들이 파리에 소개되었으며 빅 룩(big look)과 재패니즈 룩(Japanese look)이 유행하였다. 또한 에스닉 스타일은 중·근동 지방의 민족의상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풍성한 드레이프와 화려한 장식의 작품들이 많이 나타났다²⁰⁾.

1980년대 후반에는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라 다양한 취미활동과 여가 생활로 인해 많은 여행인구가 늘어났으며 남태평양 지역의 하와이, 발리, 타이티 섬 등에서 휴가를 즐기면서 그 지역에서 입을 수 있는 트로피컬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1990년대는 환경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자연 보호 운동의 확산으로 에콜로지(ecology)가 등장하였는데 그것은 자연으로 돌아가 순수한 자연의 숨결을 추구하면서 그 아름다움을 재현하는 스타일로 대표적인 디자이너와 브랜드로는 콤므 데 가르송(Comme des Garçons), 이

17) B.B.Baines(1981), Fashion Revivals: form Elizabethan age to the Present

Day, London:B.T.Batsford, p.172

18) 조영아·유혜영(2001), 20세기 동양모드의 변화 연구, 한국복식학회지, 제51호, p.21

19) 김중복, 전개논문, p.102

20) 박성희, 전개논문, p.10

세이 미야케(Issey Miyake), 요지 야마모토(Yohji Yamamoto) 등이 있다²¹⁾.

또한 일본에 소재를 두고 있는 트렌드 컨설턴트 니콜 휠(Nicole Fall)은 “동양은 문화와 전통이 견고하고 뿌리가 깊어 끊임없이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원천”이라 말하였고 이렇게 20세기에서 21세기를 넘어오며 표상적으로 보이는 디자인 차용에서 동양의 정서와 철학까지 다양하게 표현하려는 적극적인 현대 서양 디자이너들에 이르기까지 동양을 에스닉 이미지의 유형으로 하는 동서양 복식문화의 하이브리드는 패션계의 커다란 화두가 되어가고 있다²²⁾.

이상과 같이 에스닉 패션은 그 의미와 용어의 변화과정을 거쳐 21세기로 오면서 패션의 다원화경향으로 그 동안 소개되었던 다양한 에스닉 스타일들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패션경향을 보이고 있다.

2. 에스닉 메이크업

1) 에스닉 메이크업의 개념

아름다움에 대한 인간의 가치는 인류문명의 탄생과 그 역사를 함께 하며 이 시기, 메이크업은 인간이 타인에게 미적 가치를 부여함과 동시에 위엄성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²³⁾.

원시 시대에 사용된 메이크업은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동시에 주술적, 종교적인 의미와 신분 표시²⁴⁾를 위해 사용하였다.

에스닉 메이크업 역시 에스닉 패션과 마찬가지로 서양의 시각에서 바라본 타국의 신비롭고 이국적인 아름다움을 차용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따라서 이국적인 이미지들에서 얻어지는 각 민족고유의 특징적인 화장법과 문신,

21) 한소원.김영인(1999), 1990년대 초반 복식유행에 나타난 에콜로지 이미지,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p.32

22) 한국 무역협회 동향 보고서 (<http://www.samsungdesign.net>)

23) 이학재(1994), 분장의 길, 서울:자유문화사, p.25

24) 양취경.김경란(2005), 다문화시대 하이브리드 패션과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제13호, p.373

상혼 등의 신체 장식 방법을 표현한 것으로 중국의 경극 메이크업, 일본의 가부키 메이크업에서 영감을 받은 오리엔탈 풍의 메이크업과 인도의 발리우드 메이크업, 아메리칸 인디언,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원주민의 느낌을 자아내는 이국적인 취향의 원시적인 메이크업, 신의 상징으로 눈을 표현하는 이집트의 메이크업 등으로 나타난다²⁵⁾.

이와 같이 에스닉 메이크업은, 전통적인 메이크업의 모티브를 현대 메이크업에 접목시켜 이미지를 변화하고자 하는 역사성으로의 회귀경향을 나타내는 전통적인 이미지와, 다른 문화권의 분위기, 색채, 문양, 소재 등 이국적인 장식을 서구적 양식과 함께 융합된 형태로 표현하는 이국적 이미지를 바탕으로 한다²⁶⁾. 또한 자연으로의 회귀본능과 동경이라는 현대인간의 본성을 담아 천연소재와 자연색상으로 표현하는 자연적 이미지²⁷⁾와 디지털 문화에서 오는 회의감을 아프리카와 같은 원시부족의 때 묻지 않은 원시성에 대한 향수와 함께 덜 정교하고, 덜 표백된 원시적인 모티브로 표현하는 원시성 이미지²⁸⁾를 바탕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에스닉 메이크업의 전개

메이크업은 인류와 동일한 유구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피부 표면에 직접 행해진다는 제한성으로 다른 치장 요소에 비해 그 표현방법과 형태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20세기 후반 포스트 모더니즘의 다원성과 함께 예술 전반에서 자유자재의 표현을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예술의 한분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이시기의 화장품 산업 발달에 힘입어 일반에게까지 보편적으로 행해지게 되었다. 또한 에스닉 메이크업 역시, 에스닉 패션이 20

25) 장현숙(2004), 패션쇼에 나타난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45

26) 임영자·김선영(2000), 현대 패션에 표현된 New Orientalism에 관한 연구, 복식학회, 제50호, p.51

27) 전소영(1995), 현대 패션에 나타난 에콜로지 경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3

28) 박진희(1994), 20세기 후반 fashion에 나타난 African primitivism에 관한 연구,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4

세기 후반 본격적으로 복식에 사용되면서 패션과 함께 조화를 이루는 토털 패션의 일환으로 본격적인 메이크업의 큰 경향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²⁹⁾.

그러나 20세기 후반 에스닉 메이크업이 부각되기 이전에도 과거의 아름다움을 재현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미지와 함께 에스닉 메이크업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1960년대에는 젊은이들이 기성세대의 관습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특유한 삶의 방식을 전개하고, 사회 문화 전반에 영향을 준 시대이다³⁰⁾. 메이크업 역시 젊음에 대한 찬미로 10대, 20대 소녀들의 새로운 유형을 표현하게 되었다. 사회 반향을 표출했던 히피족들이 서구의 팽배된 물질문명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화를 전개하면서 메이크업도 전반적으로 부드러워지는 경향을 띄어 내추럴한 색상과 함께 정교하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은 듯한 토속적이고 민속적인 패턴으로 등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메이크업은 자유스럽게 풀어헤친 메시(messy) 헤어스타일, 민속풍, 전원풍의 집시(Gipsy) 의상이나 아메리칸 인디언 인디언, 동양풍의 의상 등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 나갔다³¹⁾.

1970년대 후반 메이크업은 베트남 전쟁의 영향으로 휴머니즘을 강조하는 움직임과 함께 동양에 대한 관심이 표현되었으며, 특히 1970년대 후반 프레타 포르테 컬렉션을 통해 에스닉 패션 스타일, 포크로어 룩, 로맨틱 룩 등이 자연회복 운동과 함께 등장하면서 메이크업에 있어서도 동양과 타국의 아름다움을 재현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³²⁾.

1980년대 초반은 다양한 화장품의 종류와 컬러의 등장으로 인하여 메이크업 테크닉 또한 다양화되었다. 이 시기에는 혁명적인 색의 도입으로 이전 시대의 부드러운 조화들에 변화를 가져오면서 내추럴함보다는 인공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함에 따라 메이크업에 있어 에스닉 경향이 약화되고 실험적인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오존층 파괴와 환경문제의 대두와 함께 피부에 많은 관심이 생기면서 메이크업 경향 역시 부드럽고 여

29) 양숙희.장미숙(1999),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네오아방가르드 경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p.413

30) 간문자(1996), 1960년대 저항 패션이 민속풍 패션에 미친 영향, 한국복식학회, 제30호, p.153

31) 양숙희.장미숙, 전개논문, p.32

32) 네이버 백과사전, 1970년대 스타일, (<http://www.naver.com>)

성스러움이 강조된 내추럴풍과 에스닉 메이크업의 내추럴하고 원시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는 색상과 표현법이 사용되었다³³⁾.

1990년대 초,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환경파괴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캠페인으로 에콜로지풍의 유행이 나타났다. 자연적인 숲과 땅의 색을 바탕으로 한 내추럴한 에콜로지 경향이 메이크업에서도 각광을 받았으며, 특히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Out of Africa)’의 흥행과 함께 나타난 유럽풍의 사파리룩이 아름다운 아프리카의 자연을 배경으로 소개되면서 현대 문명 속에서 아프리카의 아름다움이 패션 및 메이크업의 흐름으로 나타났다³⁴⁾.

이와 같이 에스닉 메이크업은 20세기 후반 본격적인 메이크업 경향으로 자리 잡았으나 그 이전, 사회가 현대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오는 사회적인 반향의 일환으로 자연적이고 원시적인 아름다움에 관심을 돌리면서 나타난 에콜로지, 레트로, 내추럴 등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혼합되어 사용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33) 양숙희, 장미숙, 전개논문, p.41

34) 박성희, 전개논문, p.31

3. 에스닉 패션과 메이크업의 유형

1) 에스닉 패션의 유형

에스닉 패션과 메이크업에 관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에스닉 패션과 메이크업의 유형을 분류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에스닉 패션과 메이크업의 유형

분야	연구자	에스닉 스타일 유형
패션	간문자 ³⁵⁾ (1996)	동양풍, 아프리카풍, 인디언풍, 인도풍, 일본풍
	서봉하 ³⁶⁾ (2004)	동양풍, 중동풍, 아프리카풍, 남미풍, 열대풍, 아메리칸 인디언풍
	최영옥 ³⁷⁾ (2005)	일본풍, 중국풍, 인도풍, 중동풍, 아프리카풍
패션과 메이크업	김수진.한명숙 ³⁸⁾ (1998)	중근동, 잉카, 인도네시아, 인도
	김교회 ³⁹⁾ (2003)	중국, 일본
	양취경.김경란 ⁴⁰⁾ (2005)	중국풍, 일본풍, 한국풍
메이크업	양숙희.장미숙 ⁴¹⁾ (1999)	일본의 가부키, 중국의 경극, 아프리카의 원시가면 메이크업
	김경순 ⁴²⁾ (2000)	중국, 아프리카, 그리스
	박성희 ⁴³⁾ (2006)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35) 간문자, 전계논문, p.153

36) 서봉하, 전계논문, pp.151~152

37) 최영옥, 전계논문, pp.483~485

38) 김수진.한명숙(1998), 1990년대의 패션과 메이크업 경향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 연구, 제6권, pp.89~90

39) 김교회(2003), 패션경향에 따른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대구카톨릭대학교 석사학

에스닉 패션과 메이크업에 관한 선행 연구에 의하면 중국, 일본의 동양과 아프리카, 아메리칸 인디언과 남아메리카의 잉카, 그리고 동서양의 가운데에 위치한 인도와 중동, 남반구의 오세아니아 지역 등이 에스닉 스타일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계의 각 지역에 따라 독특하고 민속적인 에스닉 문화가 발전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밀라노와 뉴욕 컬렉션에 나타난 패션과 메이크업의 에스닉 이미지 유형 분석을 위한 기준으로, 선행 연구에서 분류한 지역적 특성을 근거로 중국풍, 일본풍, 인도풍, 아프리카풍, 아메리칸 인디언풍, 잉카풍의 여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국풍 유형



Karl Gröning, Decorated Skin,
Lodon:Thames&Hudson, p.202

Frank Wing
www.yahoo.com

[사진 1] 중국의 전통복식과 메이크업

위 논문, pp.15~16

40) 양취경.김경란, 전개논문, p.365

41) 양숙희.장미숙, 전개논문, pp.419~422

42) 김경순(2000), 세기말에 나타난 메이크업의 경향, 한국미용학회지, 제6호, p.543

43) 박성희, 전개논문, p.9

중국의 전통복식과 메이크업은 [사진 1]과 같다.

중국의 전통복식으로 알려진 것들은 기본적으로 청대에 사용되던 것으로 대표적인 치파오(qipao)는 타이트한 형태에 다트를 넣어 인체의 곡선을 살린 원피스 형의 드레스이다⁴⁴⁾. 중국 전통복식은 직선적인 스트레이트 실루엣과 인체의 윤곽을 드러낸 타이트 실루엣으로 나뉘지며 대칭의 사선 여밈과 만다린 칼라, 끈 매듭단추, 옆트임, 앞여밈과 밑단 가장자리의 장식 등으로 들 수 있다⁴⁵⁾. 중국은 실크의 나라라고 할 만큼 다양한 실크가 직조에 사용되어 복식에 화려함을 더하였으며 십이장문, 기하학문양, 동식물 문양 등의 문양장식과 북쪽의 검정색, 남쪽의 빨간색, 동쪽의 초록색, 서쪽의 흰색, 중방위의 황색 등 화려한 색상으로 표현되어 왔다. 이중 황색은 황제만이 사용할 수 있는 색으로 그 사용이 제한되었으며 붉은 색은 선사시대로부터 활력을 주는 색으로 간주되어 중국인들의 행운색으로 여겨지고 있다⁴⁶⁾.

중국풍 패션은 중국 황실 및 일반인들이 즐겨 입던 전통복식과 중국을 대표하는 문화로 잘 알려진 경극 무대의상의 특징을 기준으로 하였다.

당대 여성들은 다양한 화전 화장법을 이용하여 이마나 볼에 직접 사진을 그리거나 꽃의 형상을 붙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전통 메이크업은 경극의 무대 화장법으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중국을 대표하는 이미지의 메이크업으로 현대 패션쇼에도 자주 등장한다⁴⁷⁾.

(2) 일본풍 유형

일본의 전통복식과 메이크업은 [사진 2]와 같다.

일본의 전통복인 기모노는 원피스형식으로 통풍이 잘 될 수 있게 몸에 붙지 않는 H라인과 소매와 옷자락이 길어 보온성을 높인 종류로 나뉘지며 남녀의 구별이 없는 복식으로 크기가 표준화되어 있다. 발목까지 내려오는 길

44) 김문숙(1981), 우리복식에 중국복식이 미친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19호, p.123

45) 진경옥, 이민정(2003), 오리엔탈리즘을 응용한 유니폼 디자인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제5호, p.446

46) 양숙희, 장미숙, 전개논문, p.421

47) 김교회, 전개논문, pp.15~16



Karl Gröning, Decorated Skin, London:Thames&Hudson, p.217, p.211

[사진 2] 일본의 전통복식과 메이크업

이에 소매는 길고 넓으며 목의 부분의 V자로 파여져 앞이 트여있으며 단추나 끈 없이 왼쪽 옷자락을 오른쪽으로 여며 허리에 오비(帶)를 두르는 한 장의 기본패턴으로 평면재단이 되어있는 것이 특징이다⁴⁸⁾.

기모노의 전통소재는 견이 사용되었고 직선적이고 단순한 기모노의 외형적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염직기술이 발달, 자수와 염색을 이용한 화초문, 운문, 난초, 매화, 대나무 등과 나비, 학, 사군자의 모양을 형상화하기도 하였다. 또한 순백의 의복에서 점차 색을 가미하게 되면서 에도시대⁴⁹⁾와 겐로꾸시대에는 주홍색, 짙은 갈색, 남색, 검은색 등을 주로 사용하여 세밀하고 화려한 색을 연출하기 시작하였다⁵⁰⁾. 일본을 대표하는 화장술로는 일본 전통 무대극인 가부키를 들 수 있다. 일본 에도시대에 민중 연희로 탄생한 가부키의 분장은 역할의 성격과 연령, 신분 등을 한눈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으로 얼굴에 흰색을 칠하고 가늘고 긴 눈썹과 아이라인 끝을 올려 그려

48) 양숙희.장미숙, 전계논문, pp.419~420

49) 에도시대: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막부(幕府)를 개설한 1603년부터 1867년, 이희승 (2006), 국어대사전, 경기: 민중서림, p.2569

50) 진경옥.이민정, 전계논문, p.445

날카로운 이미지를 나타내며 입술은 붉은색으로 작게 표현하였다⁵¹⁾⁵²⁾.

(3) 인도풍 유형



Karl Gröning, Decorated Skin, London:Thames&Hudson, p.180, p.175

[사진 3] 인도의 전통복식과 메이크업

인도의 전통복식과 메이크업은 [사진 3]과 같다.

인도의 전통복으로 가장 잘 알려진 사리(sari)는 폭 1미터 내외, 길이 5~6미터의 바느질이 되어 있지 않은 긴 천을 둘러 입는 형태의 의복으로, 폴리(choli)라는 타이트한 상의와 함께 허리를 노출하여 입는 원피스형 의복이다⁵³⁾. 또한 튜닉 스타일의 의복인 살와르 까미즈(Salwar Kamiz)는 무슬림의 여인들이 입던 옷에서 유래된 것으로 긴 셔츠를 까미즈(Kamiz), 헐렁한 바지를 빠자마(pajama)라고 하여 오르니(Orhni)라고 하는 일종의 스카프와 함께 착용한다. 가그라(Ghaghra)는 사리와는 달리 바느질을 한 옷으로 펼치면 도

51) 김교회, 전개논문, p.16

52) 김수진.한명숙, 전개논문, p.90

53) 네이버 백과사전, 인도복식, (<http://www.naver.com>)

넛 모양이 되는 큰치마를 말하는데 화려한 자수와 주름으로 장식된 발목길이의 스커트이다⁵⁴⁾.

인도에서는 화장을 통해 사회적인 신분을 나타낸다. 인도의 전통 메이크업 방법 중 헤나(henna)라는 식물의 잎을 갈아서 피부에 물들이는 화장법은 색상에 따라 그 의미를 달리하는데, 빨강은 불을, 오렌지는 떠오르는 태양을, 황토색은 피를, 분홍은 지구를 상징한다⁵⁵⁾. 많은 여성들은 자신이 기혼자임을 알리기 위해 머리를 빨강계 물들였고 신부에게는 쌀가루로 피부를 밝게 만들었으며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눈 주위를 검게 칠하는 화장법을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약한 기운에서 보호하기 위함이었고, 신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 이마를 붉게 물들이기도 하였다⁵⁶⁾.

(4) 아프리카풍 유형

아프리카의 전통복식과 메이크업은 [사진 4]와 같다.



Karl Gröning, Decorated Skin, London:Thames&Hudson, p.156, p.157

[사진 4] 아프리카의 전통복식과 메이크업

54) 이옥순(2002), 인도에는 카레가 없다, 서울:책세상, p.77

55) 김성희(2002), 에스닉 스타일을 응용한 아트메이크업 작품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4

56) 장현숙, 전개논문, p.48~49

아프리카 대륙은 동반구 남서부에 위치한 남북 양반구에 걸친 세계 제2의 대륙으로 광활하고 인종도 다양한데 반해 평균 인구밀도가 매우 낮아 다른 대륙에 비해 고립된 특징의 부족문화가 발달하게 되었다⁵⁷⁾. 또한 대륙의 90% 이상이 열대성 기후대에 속하므로 이슬람 문화권 영향권에 있는 사하라 북쪽을 제외한 블랙-아프리카의 경우 전통의복 보다는 기후조건에 따라 신체에 직접 장식한 문양이나 장신구를 중심으로 한 복식문화가 형성되었다⁵⁸⁾.

아프리카인들은 장식의 욕구로 강한 동물을 모방하고자 하여 사자의 털을 족장의 머리에 두르거나 사냥한 동물의 뼈를 장신구로 이용하였으며⁵⁹⁾ 얼룩말과 같은 신체 채색이나 피부에 상처를 내어 만드는 상흔을 통한 장식을 하였다. 대표적인 신체채색으로 주술적인 효력을 발생시키고 치료약의 역할을 하는 빨간색과 성인식이나 신령들과의 교감, 전사자를 추모식 등에 사용되는 흰색이 주로 사용되었으며⁶⁰⁾ 때로는 황토를 섞어 팔, 다리에 촘촘히 곡선이나 격자무늬, 얼룩말 무늬 등의 형태를 그려 넣기도 하였다⁶¹⁾.

또한 주술, 종교적인 의례와 장식적인 의미로 상흔이나 문신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아프리카인들의 경우 검은색 피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문신보다는 피부에 상처를 내어 음영을 만드는 방법이 더 애용되었다. 그 외에도 성인식 대상이 되는 전사자들에게는 석회가루를 섞어 만든 흰 물감 반죽으로 얼굴과 전신에 다양한 문양을 그려 넣고 눈 주위와 이마를 부각시키는 화장법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입술마개나 꿇볼 절개, 금속 고리 등으로 목을 길게 만드는 신체변형으로 장식효과를 내어 성적 매력을 과시하기도 하였다⁶²⁾.

(5) 아메리칸 인디언풍 유형

북아메리카 인디언의 전통복식과 메이크업은 [사진 5]과 같다.

57) 박성희, 전개논문, p.18

58) 양숙희.장미숙, 전개논문, p.422

59) 장현숙, 전개논문, p.49

60) Berebice Geoffory-Schneider(2001), Ethnic Style, Kentucky:Assouline, p.22

61) 박진희, 전개논문, p.8

62) 박성희, 전개논문, p.19



Native American in Costume
「www.yahoo.com」



Karl Groning
「Decorated Skin」

[사진 5] 아메리칸 인디언의 전통복식과 메이크업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동양의 인도의 일부로 착각하여 원주민을 인디오(Indio:에스파냐어로 인도인이라는 뜻)라고 부른 뒤, 본래의 인도인과 구별하기 위하여 '아메리카의 인도인'이라 부른데서 유래된 아메리칸 인디언은 북미 아메리카 지역의 에스키모와 알루트를 제외한 부족을 일컫는 말이다⁶³⁾.

북아메리카 원주민은 자원이 풍부한 자연 속에 살며 식료, 의복, 주거, 무기과 장신구에 이르기까지 모두 자연계에 서식하는 동식물을 취하여 만들어왔다. 유럽 탐험가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처음 왔을 때는 이 곳 원주민들은 아름답게 염색된 가죽과 모피, 깃털 그리고 나무의 부드러운 껍질과 풀로 만들어진 스커트, 로브, 헤어밴드 등과 두꺼운 생가죽이나 부드러운 가죽으로 만든 수술 장식을 디테일로 사용한 모카신(moccasin), 세시(sash), 벨트(belt), 가터(garter), 네크레이스(necklace) 등의 다양한 액세서리를 사용하였다⁶⁴⁾. 아메리칸 인디언 부족들은 각기 다른 종교의식에 따라 복식문양을 다르게 표

63) 네이버 백과사전, 아메리칸 인디언, <http://www.naver.com>)

64) 엄윤경(1994), 북아메리카 민속의상의 수술 장식을 응용한 복식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34

현하였으며 이를 통해 그들의 염원을 빌었다. 또한 영적인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기 위한 주술적 의미의 복식을 착용했고 복식에 사용된 동물의 재료는 수호의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이들에게 독수리는 자유로운 정신을 갖고 있는 신성한 동물로 여겨져 독수리 깃털은 의복에 덧붙여지거나 직물을 직조할 때 섞어 사용되었다⁶⁵⁾.

(6) 잉카풍 유형

잉카의 전통복식과 메이크업은 [사진 6]과 같다.



August Racinet
「www.yahoo.com」



Karl Gröning, Decorated Skin,
Lodon:Thames&Hudson, p.63

[사진 6] 잉카의 전통복식과 메이크업

잉카는 앞의 북아메리카 지역과 근접해있는 지역으로 남아메리카의 중앙 안데스 지방인 페루, 볼리비아 지역의 복식을 구성하는 색상과 패턴 등의 문양에서 유사한 점을 가지나 동물의 가죽이나 깃털 등의 소재를 주로 사용하는 아메리칸 인디언의 전통복식에 비해 좀 더 완성된 의복의 형태를 지니며

65) 이민경. 한명숙(1998), 북아메리칸 북아메리카의 복식재료에 나타난 유럽적 요소, 복식문화연구, 제6호, p.39

발달된 직조기술을 사용한 양탄자, 러그 또는 그 문양을 활용한 망토나 폴 스커트 등의 의복을 특징으로 한다. 특히 나바호(navajo) 아메리칸 인디언의 경우 여러 색으로 이루어진 줄무늬나 다양한 넓이의 밴드 직조기술이 발달하여 대각선, 지그재그선, 다이아몬드 형태, 노란색, 갈색, 파란색과 녹색, 붉은색 등으로 표현된 활동적인 표현이나 직선, 수평선, 수직선, 직사각형, 흰색, 검은색, 회색 등으로 표현된 정적인 패턴으로 나뉘어 진다⁶⁶⁾. 잉카의 전통 메이크업은 아메리칸 인디언과의 지역적인 유사함 때문에, 붉은 색을 강조하며 고유의 검정색 헤어와 눈썹을 그대로 살린 아메리칸 인디언 메이크업과 유사하다⁶⁷⁾.

2) 메이크업 표현기법의 유형

메이크업은 의상을 더욱 돋보이게 연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메이크업에 사용된 표현기법을 살펴보면, 양취경, 김경란(2005)⁶⁸⁾은 전통적 메이크업과 레트로 메이크업, 뱀프(vamp) 메이크업, 에스닉 메이크업, 퓨처(future) 메이크업으로 분류하였고, 장현숙(2004)⁶⁹⁾은 패션쇼에 나타난 메이크업의 유형을 그 이미지에 따라 내추럴과 레트로, 에스닉, 아트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밀라노, 뉴욕 컬렉션의 에스닉 패션에 표현된 메이크업의 유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의 분류 방법과 함께 최근 다양한 메이크업 현장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기법을 중심으로 스모키(Smoky) 메이크업, 소프트 스모키(Soft Smoky) 메이크업, 레트로(Retro) 메이크업, 아방가르드(Avant-garde) 메이크업, 내추럴(Natural) 메이크업, 오리엔탈(Oriental) 메이크업 등 총 여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66) 정미실(2002), 19세기후반 전환시대 Navajo 북아메리카직물의 고찰, 대한가정학회, 제40호, p.37

67) 장현숙, 전개논문, p.48

68) 양취경.김경란, 전개논문, pp.370~374

69) 장현숙, 전개논문, pp.44~49

(1) 스모키 메이크업

스모키 메이크업은 2000년대에 가장 주를 이룬 메이크업 트렌드로 깊고 그윽한 눈매를 연출해 부드러운 이미지에서 성숙하고 극적인 느낌까지 다양한 이미지로 끊임없이 인기를 끌고 있는 표현이다. 스모키(smoky) 메이크업은 아이라인과 아이섀도우로 눈을 강조하고 어두운 피부표현과 입술 색상을 강조하거나, 누드톤의 색상으로 촉촉함이 없는 인공적인 느낌의 매트함으로 표현할 수 있다⁷⁰⁾. 따라서 시각적으로 강조되는 광고 영상이나 쇼 무대 등 많은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메이크업 테마이다.

(2) 소프트 스모키 메이크업

소프트 스모키(Soft Smoky) 메이크업은 부드러운 아이컬러 사용 또한 맑은 피부질감에 누드 톤의 입술표현이 대표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소프트 스모키 메이크업 또한 시각적으로 강조되는 광고 영상이나 쇼 무대 등 많은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메이크업 테마이다.

(3) 레트로 메이크업

레트로 메이크업은 과거 유행했던 메이크업 스타일을 재현한 표현방법으로 크게 1930년대 레트로 스타일과 1950년대 레트로 스타일로 나타나고 있다. 1930년대 레트로 스타일은 경제 대공황으로 실업이 증가하여 사회활동을 하던 여성들이 가정으로 복귀하면서 여성스러운 패션 스타일과 함께 나타난 메이크업 방법이다. 현실을 잊고자 영화의 마력에 빠져들어 할리우드 영화가 전성기를 맞이하던 이 시기의 영화 주인공들의 영향을 받아 그레타 가르보의 가는 활모양 눈썹과 아이홀의 깊은 음영, 긴 속눈썹, 그리고 볼륨감 있는 입술 등의 표현을 모방하던 시기의 표현방법을 재현한다. 1950년대 레트로 메이크업은 화려함과 사치스러운 의상과 함께 마릴린 먼로, 오드리 햅번 등이

70) 김경순, 전제논문, p.543

패션 아이콘으로 통하며 유행을 선도하던 시기에 함께 유행한 메이크업 방법이다. 20세기 섹스 심벌이 된 밝은 금발, 윤기 나는 빨간 입술, 블랙 아이라인을 진하고 길게 그려 정열적인 표현을 한 방법을 말한다.⁷¹⁾ 레트로 메이크업 유형에서는 1930년대와 1950년대의 레트로 메이크업을 함께 레트로 메이크업의 유형으로 단일화하였다.

(4) 아방가르드 메이크업

아방가르드 메이크업은 프랑스어로 ‘앞서다’, ‘전진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아방가르드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선구자’, ‘첨단을 걷는 사람’을 가리킨다⁷²⁾. 따라서 아방가르드 메이크업은 일정한 틀 없이 예술성 위주의 메이크업을 말할 때 사용되며 실사 메이크업의 범위에서 벗어나 무한한 창의력이 표현되는 메이크업 방법이기도 하다.

(5) 내추럴 메이크업

내추럴 메이크업은 기존 연구에서 주로 자연주의로 표현된 방법으로,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강조하지 않고 내추럴한 아름다움을 부각시킬 수 있는 투명한 피부표현과 건강함, 활발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메이크업이다.⁷³⁾ 눈이나 입술에 장식적이고 인위적인 기교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며, 눈 화장은 내추럴한 색상으로 음영만을 표현하며 입술은 립그로스로 윤택함을 더해주고 립라이너로 윤곽을 살짝 살려준 뒤 눈화장과 유사한 중간색조로 정리해주는 것이 특징이다⁷⁴⁾.

71) 양취경.김경란, 전개논문, pp.379~380

72) 양숙희.장미숙, 전개논문, pp.424~425

73) 김수진.한명숙, 전개논문, p.89

74) 손영미.이혜정(2005), 헤어,메이크업 디자인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제7호, p.659

(6) 오리엔탈 메이크업

오리엔탈 이미지는 중국과 일본의 전통적인 메이크업 표현 방법을 포괄적으로 흡수한 테마로 동양인 고유의 하얗고 깨끗한 피부톤을 강조하고 붉고 작은 입술과 붉은 계열의 볼터치로 뺨 부분을 강조하여 하얀 피부를 한층 강조하고 수줍은 듯한 인상을 더해주는 표현기법이다⁷⁵⁾. 또한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기보다는 흰 피부톤 위에 블랙 색상의 눈썹 표현과 레드 색상의 입술과 볼터치만으로 정갈한 느낌을 표현한다.

메이크업의 여섯 가지 표현기법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메이크업 표현기법

유형	표현기법
스모키 메이크업	아이라인과 아이섀도우로 눈을 강조하고 어두운 피부표현. 입술에 강조되는 컬러 또는 광택 없게 표현
소프트 스모키 메이크업	부드러운 아이컬러. 맑은 피부질감, 누드톤의 입술표현
레트로 메이크업	과거 유행했던 메이크업 스타일을 재현한 표현방법. 금발머리와 가는 활모양 눈썹, 아이홀의 깊은 음영, 긴 속눈썹, 볼륨있는 입술 등의 표현
아방가르드 메이크업	일정한 틀이 없는 예술성 위주의 메이크업. 실사 메이크업의 범위에서 벗어나 무한한 창의력이 표현되는 메이크업 방법
내추럴 메이크업	자연주의로 표현된 방법.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강조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부각시킬 수 있는 투명한 피부표현과 절제된 컬러사용으로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나타내는 메이크업. 자연스러운 색상으로 음영만을 표현한 눈화장, 립라이너로 입술 형태만 자연스럽게 정리하고 립글로스로 촉촉함을 더하며 눈화장과 유사한 중간색조로 정리한 입술표현
오리엔탈 메이크업	중국과 일본의 전통적인 메이크업 방법. 동양인 고유의 하얗고 깨끗한 피부톤, 붉고 작은 입술과 볼터치, 하얀 피부를 한층 강조하고 수줍은 듯한 인상을 더해주는 표현기법. 검정 눈썹과 붉은 입술과 볼의 표현

75) 김교희, 전계논문, p.15~16

III. 에스닉 패션과 메이크업의 유형별 특성

1. 에스닉 패션의 유형 특성

2001년 S/S시즌부터 2005년 F/W시즌까지 밀라노와 뉴욕에서 열린 프레타포르테 컬렉션의 작품 중 에스닉 패션을 표현한 디자인을 본 연구의 시각자료로 활용하였다. 컬렉션에서 추출된 에스닉 패션은 총 267 작품이었으며 각 작품의 색상, 소재, 디테일에 따라 기준으로 정한 중국, 일본, 인도, 아프리카, 아메리칸 인디언, 잉카의 여섯 가지 에스닉 패션의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1) 유형별 에스닉 패션의 변화추이

[표 3]은 밀라노, 뉴욕 컬렉션의 총 267 작품을 에스닉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아프리카 풍이 62 작품, 23%로 여섯 가지의 에스닉 패션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아프리카풍 다음으로는 아메리칸 인디언풍, 일본풍, 인도풍, 중국풍, 잉카풍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즌별로는 모든 유형의 에스닉 패션이 매년 F/W보다 S/S에서 많이 등장하였다.

지역별로도 밀라노와 뉴욕 컬렉션에서 모두 아프리카풍의 작품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아프리카풍의 뒤를 이어 밀라노 컬렉션에서는 아메리칸 인디언풍, 일본풍, 뉴욕 컬렉션에서는 인도풍, 일본풍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에스닉 패션 유형의 변화추이

n=267, 단위: 작품수(%)

유형	년도					시즌		컬렉션		계
	2001	2002	2003	2004	2005	SS	FW	Milano	New York	
아프리카	9 (3)	19 (7)	0 (0)	4 (1)	30 (11)	53 (20)	9 (3)	46 (17)	16 (6)	62 (23)
인도	9 (3)	8 (3)	5 (2)	1 (0)	20 (7)	22 (8)	21 (8)	28 (10)	15 (6)	43 (16)
아메리칸 인디언	15 (6)	17 (6)	8 (3)	3 (1)	7 (3)	38 (14)	12 (4)	39 (15)	11 (4)	50 (19)
일본	19 (7)	5 (2)	4 (1)	1 (0)	17 (6)	37 (14)	9 (3)	33 (12)	13 (5)	46 (17)
잉카	8 (3)	5 (2)	3 (1)	6 (2)	9 (3)	21 (8)	10 (4)	20 (7)	11 (4)	31 (12)
중국	8 (3)	4 (1)	10 (4)	3 (1)	10 (49)	22 (8)	13 (5)	26 (10)	9 (3)	35 (13)
계	61 (25)	55 (22)	27 (11)	12 (7)	92 (35)	193 (72)	74 (28)	192 (72)	75 (28)	267 (100)

여섯 가지 에스닉 유형의 년도별, 시즌별, 컬렉션별 변화추이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에스닉패션 유형의 컬렉션/시즌별 변화 추이

n=267, 단위: 작품수(%)

년도 시즌 컬렉션 패션유형	2001						2002					
	SS			FW			SS			FW		
	Milano	New York	합	Milano	New York	합	Milano	New York	합	Milano	New York	합
아프리카풍	9(3)	0(0)	9(3)	0(0)	0(0)	0(0)	16(6)	0(0)	16(6)	3(1)	0(0)	3(1)
인도풍	5(2)	0(0)	5(2)	3(1)	1(0)	4(1)	2(1)	2(1)	4(1)	3(1)	1(0)	4(1)
아메리칸인 디언풍	2(1)	3(1)	5(2)	9(3)	1(0)	10(4)	15(6)	0(0)	15(6)	2(1)	0(0)	2(1)
일본풍	11(4)	2(1)	13(4)	6(2)	0(0)	6(2)	2(1)	2(1)	4(1)	1(0)	0(0)	1(0)
잉카풍	3(1)	0(0)	3(1)	4(1)	1(0)	5(2)	3(1)	0(0)	3(1)	0(0)	2(1)	2(1)
중국풍	2(1)	1(0)	3(1)	4(1)	1(0)	5(2)	2(1)	0(0)	2(1)	0(0)	2(1)	2(1)

년도 시즌 컬렉션 패션유형	2003						2004					
	SS			FW			SS			FW		
	Milano	New York	합	Milano	New York	합	Milano	New York	합	Milano	New York	합
아프리카풍	0(0)	0(0)	0(0)	0(0)	0(0)	0(0)	1(0)	0(0)	1(0)	3(1)	0(0)	3(1)
인도풍	0(0)	0(0)	0(0)	4(1)	1(0)	5(2)	1(0)	0(0)	1(0)	0(0)	0(0)	0(0)
아메리칸 인디언풍	7(3)	1(0)	8(3)	0(0)	0(0)	0(0)	3(1)	0(0)	3(1)	0(0)	0(0)	0(0)
일본풍	2(1)	1(0)	3(1)	0(0)	1(0)	1(0)	1(0)	0(0)	1(0)	0(0)	0(0)	0(0)
잉카풍	2(1)	0(0)	2(1)	1(0)	0(0)	1(0)	5(2)	0(0)	5(2)	1(0)	0(0)	1(0)
중국풍	7(3)	0(0)	7(3)	1(0)	2(1)	3(1)	0(0)	0(0)	0(0)	3(1)	0(0)	3(1)

패션유형\년도 시즌 컬렉션	2005						합계		총합계
	SS			FW					
	Milano	New York	합	Milano	New York	합	Milano	New York	
아프리카풍	12(4)	15(6)	27(10)	2(1)	1(0)	3(1)	46(17)	16(6)	62(23)
인도풍	10(4)	2(1)	12(4)	0(0)	8(0)	8(3)	28(10)	15(6)	43(16)
아메리칸 인디언풍	1(0)	6(2)	7(3)	0(0)	0(0)	0(0)	39(15)	11(4)	50(19)
일본풍	9(3)	7(3)	16(6)	1(0)	0(0)	1(0)	33(12)	13(5)	46(17)
잉카풍	0(0)	8(3)	8(3)	1(0)	0(0)	1(0)	20(7)	11(4)	31(12)
중국풍	7(3)	3(1)	10(4)	0(0)	0(0)	0(0)	26(10)	9(3)	35(13)

여섯 가지 에스닉 유형 중 가장 많이 등장한 아프리카풍은 2002년 S/S시즌에 가장 많이 나타났고 2003년 S/S시즌을 제외한 S/S시즌에 빠짐없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밀라노 컬렉션에서 주로 나타났으며, 뉴욕 컬렉션의 경우 2005년 S/S시즌에만 유일하게 아프리카풍이 나타나는 차이점을 보였다.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난 아메리칸 인디언풍 역시 2002년 S/S시즌에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밀라노 컬렉션의 경우 2001년부터 2003년 S/S까지 꾸준히 나타났으나 그 이후에는 S/S시즌에만 보이고 있었다.

일본풍은 2001년 S/S시즌 가장 많이 나타난 에스닉 유형이었으나 그 이후 차츰 비중이 줄어들었다. 일본풍은 이후 2005년 S/S시즌 다시 비중이 커진 경향을 보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특히 밀라노 컬렉션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인도풍의 경우 다른 유형에 비해 밀라노와 뉴욕 컬렉션에서 비교적 꾸준히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뉴욕 컬렉션에서는 S/S시즌에 주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으며, 그중에서도 2005년 S/S시즌에 가장 많은 인도풍의 작품이 보였다. 중국풍은 시즌별로 큰 차이 없이 등장하는 유형으로 밀라노와 뉴욕 컬렉션에서 모두 적은 비중이지만 꾸준히 나타났으며, 특히 2003년 S/S시즌 밀라노 컬렉션에서 한동안 그 비중이 급증하였다. 잉카풍은 주로 밀라노 컬렉션에서 전 시즌에 걸쳐 꾸준히 나타나는 에스닉 패션 유형이었으나 2005년 S/S시즌에는 그동안 잉카풍의 작품이 많이 보이지 않던 뉴욕 컬렉션에서 많은 작품이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에스닉 유형이 지난 5년간 변화한 추이를 살펴보면, 2001년 S/S시즌에 가장 많이 나타났던 일본풍은 2005년 F/W시즌까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나타내며 이에 반해 중국 유형이 2003년 S/S시즌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중국 유형과 함께 인도 유형 역시 주로 F/W시즌에 한정되어 있기는 하나 최근까지 증가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특히 뉴욕 컬렉션에서 2005년 F/W시즌 인도 유형의 작품이 급증한 영향을 받았다. 아메리칸 인디언 유형의 경우 주로 S/S시즌에 많이 나타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2001년부터 2003년 S/S시즌의 기간에 비해 점차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에스닉 패션 유형의 컬렉션 발표 지역별 변화추이를 보면, 밀라노

컬렉션에서는 인도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5가지의 유형이 F/W시즌보다는 S/S시즌에 더 많이 나타나며 시즌별 유형의 변화추이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전체 컬렉션에서 밀라노 컬렉션의 비중이 뉴욕 컬렉션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한편 뉴욕 컬렉션에서는 2005년 S/S시즌에 인도 유형의 작품이 급증한 점이 밀라노 컬렉션과 차이를 보였으며, 그 외 유형의 경우는 비중이 크지 않아 밀라노 컬렉션과 비교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총 20회에 걸친 컬렉션에서 에스닉 스타일의 작품을 선보인 디자이너는 총 52명으로 나타났다.

에스닉 패션 유형별로 디자인 작품과 주요 디자이너를 살펴보면 [사진 7]과 같다.



2000 S/S Milano
일본풍의 디테일



에트로(Etro)
2003 F/W Milano
인도풍의 소재패턴



2005 S/S Milano
아프리카풍의 소품



2001 F/W Milano
아메리칸 인디언풍의
소재패턴



미소니(Missoni)
2003 S/S Milano
아프리카풍의 소재패턴



2004 F/W Milano
일본풍의 디테일



오스카 드 라 렌타
(Oscar de la Renta)

2005 S/S NewYork
인도풍의 소재패턴



로베르토 까발리
(Roberto Cavalli)

2002 S/S Milano
아메리칸 인디언풍의
소재와 디테일



알비에로 마티니
(Alviero Martini)

2001 S/S Milano
중국풍의 소재와 디테일

[사진 7] 에스닉 스타일을 주로 선보인 디자이너와 작품

에스닉 스타일의 작품을 가장 많이 선보인 디자이너는 에트로(Etro)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전 시즌에 걸쳐 고르게 에스닉 스타일의 작품을 소개하며, 총 267 작품 중 약 10%의 작품을 선보였다. 이것은 이국적인 텍스 타일 패턴의 소재를 주로 사용하는 에트로(Etro)의 고유 컨셉에서 기인한 것이며, 에트로(Etro)의 컬렉션에서는 인도풍의 패브릭 패턴과 동양적인 디테일, 아프리카풍의 소품이 자주 등장하였다. 그 다음으로 에스닉 스타일의 작품을 가장 많이 선보이고 있는 디자이너는 미소니(Missoni)였다. 미소니(Missoni)는 이국적인 이카트 기법의 스트라이프 패턴을 대표하는 브랜드 컨셉을 바탕으로 아프리카풍과 아메리칸 인디언풍을 주로 표현하였다. 따라서 에트로(Etro), 미소니(Missoni)와 같이 고유 컨셉이 에스닉한 성격의 디자이너 컬렉션은 트렌드에 상관없이 전 시즌에 걸쳐 에스닉 유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 인도풍을 주로 표현하는 오스카 드 라 렌타(Oscar de la Renta)와

아프리카풍, 아메리칸 인디언풍을 주로 표현한 로베르토 까발리(Roberto Cavalli)가 유사한 비중으로 에스닉 스타일의 작품을 선보였다. 그리고 일본풍, 인도풍, 잉카풍 등 다양한 에스닉 유형의 작품을 선보인 알비에로 마티니(Alviero Martini)와 주로 일본풍과 중국풍 등 동양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안토니오 마라스(Antonio Marras), 그리고 아프리카풍과 일본풍의 작품을 주로 선보인 란세티(Lancetti) 등이 에스닉 유형을 주로 사용하는 디자이너로 나타났다.

2) 시즌별 에스닉 패션의 특성분석

연구 대상이 된 2001년에서 2005년까지 5년간 총 20개의 시즌별로 각각의 시즌에 나타난 컬렉션 경향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표 5] 시즌별 에스닉 패션 유형 특성과 디자이너

시즌	유형	작품수 (%)	주요 디자이너
SS	아프리카풍	53 (27)	Gianfranco Ferre, Max Mara, Oscar de la Renta
	인도풍	22 (11)	Alviero Martini, Etro
	아메리칸 인디언풍	38 (20)	Trussardi, Anna Sui, Missoni
	일본풍	37 (19)	Lancetti, Antonio Marras, Behnaz Sarafpour
	잉카풍	21 (11)	Missoni, Etro, Marc by Marc Jacobs, Zac Posen
	중국풍	22 (11)	Giorgio Armani, Roberto Cavalli
계		193 (72)	
FW	아프리카풍	9 (12)	John Richmond, Missoni, Lancetti
	인도풍	21 (28)	Diane Von Furstenberg, Etro,
	아메리칸 인디언풍	12 (16)	Missoni, Roberto Cavalli
	일본풍	9 (12)	Etro, Antonio Marras
	잉카풍	10 (14)	Alviero Martini, Oscar De La Renta
	중국풍	13 (18)	Antonio Marras
계		74 (28)	
총계		267 (100)	

시즌별로는 전체 267 작품 중 S/S시즌에 나타나는 에스닉 작품의 비중이 193, 72%로 F/W시즌보다는 S/S시즌에 에스닉 유형이 월등히 많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S/S시즌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에스닉 유형은 아프리카풍이었고, 이어서 아메리칸 인디언풍, 일본풍의 유형 순으로 비중을 나타낸 반면, F/W시즌에는 인도풍의 유형이 가장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아메리칸 인디언풍, 잉카풍의 순이었다.

S/S시즌에 가장 많이 나타난 아프리카풍은 지안프랑코 페레(Gianfranco Ferre), 막스 마라(Max Mara), 오스카 드 라 렌타(Oscar de la Renta)등의 디자이너의 작품에서 주로 나타나며, 뉴욕 보다는 밀라노 컬렉션에서 많이 보였다. 아프리카풍 다음으로 S/S시즌에 주로 나타나는 아메리칸 인디언풍은 트루사디(Trussardi), 안나 수이(Anna Sui), 미소니(Missoni) 등의 디자이너 작품에서 많이 등장하였으며, 변형된 스트라이프를 응용한 아메리칸 인디언 고유의 텍스타일 패턴과 프린지 등의 디테일로 표현되었다. 아메리칸 인디언풍과 비슷한 비중으로 나타난 일본풍은 알비에로 마티니(Alviero Martini), 에트로(Etro)의 작품에서 많이 보였으며 주로 패브릭 디자인이나 기모노 디테일의 응용으로 표현되었다. 그 외 S/S시즌에는 인도풍, 중국풍, 잉카풍의 작품이 유사한 비중으로 나타났으며 잉카풍의 경우 대부분 밀라노 보다는 뉴욕 컬렉션에서 많이 보였다.

F/W시즌에는 인도풍의 작품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다이안 본 퍼스텐버그(Diane Von Furstenberg), 에트로(Etro) 등의 디자이너가 인도 고유의 섬세하고 정교한 패브릭 패턴을 응용한 작품을 소개하였으며, 뉴욕 컬렉션에서 그 비중이 밀라노 컬렉션보다 크게 보였다. 인도풍 다음으로 중국풍과 아메리칸 인디언풍의 작품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중국풍은 안토니오 말라스(Antonio Marras)의 작품에서 주로 보였는데, 그는 중국 전통복을 미니스커트로 변형시키며 현대화한 디자인을 선보였다. 아메리칸 인디언풍은 주로 깃털장식을 디테일로 사용한 디자인이 보였는데, 이와 같은 작품은 미소니(Missoni), 로베르토 까발리(Roberto Cavalli)의 무대에서 볼 수 있었다. 그 외 잉카풍, 아프리카풍, 일본풍의 순으로 F/W시즌의 에스닉 유형이 나타났는데, 세 가지의 유형 모두 밀라노 컬렉션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사진 8~17]은 각 시즌별로 주로 나타난 에스닉 패션 유형을 시즌별 대표적인 작품사진과 함께 나타낸 것이다.



지안프랑코 페레
(Gianfranco Ferré)

2001 S/S Milano
아프리카풍



안토니오 마라스
(Antonio Marras)

2001 S/S Milano
일본풍



마크 제이콥스
(Marc Jacobs)

2001 S/S NewYork
일본풍

[사진 8] 2001 S/S 시즌 대표적인 에스닉패션 유형의 작품

2001년 S/S시즌에는 아프리카풍과 일본풍이 비슷한 비중으로 나타났다. 섬세한 기모노 고유의 문양과 V넥라인 등 기모노를 재현한 디테일의 일본풍과 블랙&화이트 격자, 스트라이프 패턴과 가죽, 깃털 등의 동물을 이용한 아프리카풍의 표현이 주로 나타났다. 아프리카풍의 경우 뉴욕보다는 밀라노 컬렉션에서 큰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본풍의 경우 뉴욕과 밀라노 컬렉션에서 함께 나타났다. [사진 8]과 같이 지안프랑코 페레(Gianfranco Ferré)는 야자수 잎을 엮어 만든 원피스와 아프리카의 채색장식을 응용한 원피스 디자인으로 아프리카 모티브를 강조하기도 하였으며, 안토니오 마라스(Antonio Marras) 등 밀라노 컬렉션의 디자이너는 일본의 기모노 디테일을 사용하며 구조적인 변화를 시도한 반면, 마크 제이콥스(Marc Jacobs) 등의

뉴욕 컬렉션 디자이너는 기모노에 주로 사용되는 텍스타일 프린트를 응용하는 차이점을 보이기도 했다.



로베르토 까발리
(Roberto Cavalli)

2001 F/W Milano
아프리카풍

알렉산드로 아플롬보
(Alexandro Aplombo)

2001 F/W Milano
북아메리카 인디언풍

미소니
(Missoni)

2001 F/W Milano
북아메리카 인디언풍

[사진 9] 2001 F/W 시즌 대표적인 에스닉패션 유형의 작품

2001년 F/W시즌에는 깃털, 프린지 장식 등과 함께 아메리칸 인디언풍이 가장 많은 비중으로 등장하였다. 지역별로는 타시즌과 동일하게 뉴욕보다는 밀라노 지역에서 에스닉 작품이 많이 선보였다.

로베르토 까발리(Roberto Cavalli)는 깃털장식을 응용하여 이국적인 변화를 시도하였으며, 알렉산드로 아플롬보(Alexandro Aplombo)는 아메리칸 인디언의 얼굴을 아플리케(appliqué) 장식으로 표현한 디테일을 사용하였으며, 미소니(Missoni)는 브랜드 고유의 에스닉 컬러로 이루어진 스트라이프 패턴과 프린지가 조화를 이룬 아메리칸 인디언풍의 작품을 선보였다[사진 9].



**로베르토 까발리
(Roberto Cavalli)**

2002 S/S Milano
아프리카풍



**미소니
(Missoni)**

2002 S/S Milano
아메리칸 인디언풍



**스포츠 막스
(Sport Max)**

2002 S/S Milano
아메리칸 인디언풍

[사진 10] 2002 S/S 시즌 대표적인 에스닉패션 유형의 작품

2002년 S/S시즌에는 뉴욕 컬렉션에 비해 밀라노 컬렉션에서 에스닉 유형의 작품이 많이 나타났으며 그 중 아프리카풍과 아메리칸 인디언풍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아프리카풍에서는 전통 타투와 액세서리 디테일을 브라운 계열의 텍스타일로 표현한 패턴이 주로 나타났으며, 막스 마라(Max Mara)의 컬렉션에서 아프리카풍을 가장 많이 볼 수 있었다. 또한 미소니(Missoni) 등의 컬렉션에서는 전통 패브릭을 이용한 표현방법과 깃털과 절개, 프린지 장식을 이용한 아메리칸 인디언풍의 표현방법이 많이 보였다[사진 10].



존 리치몬드
(John Richmond)

2002 F/W Milano
아프리카풍



오스카 드 라 렌타
(Oscar de la Renta)

2002 F/W NewYork
중국풍



미소니
(Missoni)

2002 F/W Milano
인도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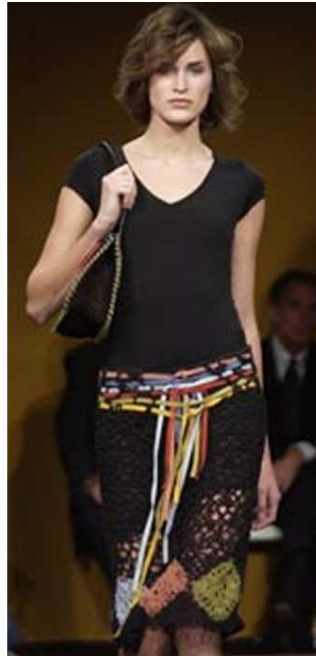
[사진 11] 2002 F/W 시즌 대표적인 에스닉패션 유형의 작품

2002년 F/W 시즌에는 밀라노와 뉴욕 컬렉션에서 유사한 비중의 에스닉 작품이 소개되었으며, 잉카풍을 제외한 5가지의 유형이 고른 분포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이 시즌의 에스닉 작품은 전반적으로 단순한 실루엣에 패브릭 텍스타일이나 디테일을 통해 변화를 준 경향을 볼 수 있었으며, 붉은색 계열과 블랙 계열의 색상으로 나타났다. 존 리치몬드(John Richmond)의 작품에서 아프리카 신체장식을 패브릭에 활용한 아프리카풍이 보였으며, 미소니(Missoni)의 작품에서는 인도의 사리를 응용한 드레스가 선보였다. 또한 오스카 드 라 렌타(Oscar de la Renta)와 이미테이션 오브 크라이스트(Imitation of Christ)의 디자이너 작품에서는 패브릭 패턴이나 기모노 디테일 등의 일본풍이 사용되었다[사진 11].



로베르토 까발리
(Roberto Cavalli)

2003 S/S Milano
중국풍



트루사디
(Trussardi)

2003 S/S Milano
아메리칸 인디언풍



제레미 스콧
(Jeremy Scott)

2003 S/S NewYork
아메리칸 인디언풍

[사진 12] 2003 S/S 시즌 대표적인 에스닉패션 유형의 작품

2003년 S/S시즌을 중심으로 중국풍의 작품이 많이 보이기 시작한 가운데, 이 시즌에는 중국풍과 아메리칸 인디언풍이 유사한 비중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로베르토 까발리(Roberto Cavalli)의 작품에서 레드와 옐로 계열의 색상으로 표현된 중국 전통복식의 디테일과 패브릭 패턴을 응용한 작품이 많이 등장하였다. 그리고 트루사디(Trussardi)의 컬렉션에서는 캐주얼한 느낌으로 실용성을 강조한 아메리칸 인디언풍의 디테일이 사용되었으며 제레미 스콧(Jeremy Scott)은 스웨이드 소재와 비즈장식으로 아메리칸 인디언 전통복식의 디자인을 응용한 수영복을 선보였다[사진 12].



**에트로
(Etro)**

2003 F/W Milano
인도풍



**오스카 드 라 렌타
(Oscar de la Renta)**

2003 F/W NewYork
인도풍



**매튜 윌리엄슨
(Matthew Williamson)**

2003 F/W NewYork
중국풍

[사진 13] 2003 F/W 시즌 대표적인 에스닉패션 유형의 작품

2003년 F/W시즌에는 중후한 느낌을 주는 무거우면서도 화려한 색상으로 표현된 중국풍 및 인도풍의 작품이 많이 나타났다. 에트로(Etro)의 작품에서는 브라운 계열의 무거운 컬러와 인도 고유의 섬세하고 장식적인 패브릭 패턴을 응용한 디자인이 선보였으며, 오스카 드 라 렌타(Oscar de la Renta)의 작품에서는 레드와 옐로 등의 색상과 매끄러운 실크소재가 어우러져 에트로(Etro)의 작품보다 밝은 느낌을 주는 중후함을 표현하였다. 또한 매튜 윌리엄슨(Matthew Williamson)의 작품에서는 중국 전통 회화의 한폭 사진이 패브릭 위에 자수 장식으로 표현되어 동양적인 느낌을 강조하였다[사진 13].

한편 2003년 F/W시즌에는 밀라노에 비해 비교적 에스닉 스타일의 작품이 작은 비중을 차지하던 뉴욕 컬렉션의 비중이 처음으로 밀라노 컬렉션보다 크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프라다(Prada)

2004 S/S Milano
잉카풍



에트로(Etro)

2004 S/S Milano
잉카풍



에트로(Etro)

2004 S/S Milano
아메리칸 인디언풍

[사진 14] 2004 S/S 시즌 대표적인 에스닉패션 유형의 작품

2004년 S/S시즌은 전 시즌에 비해 명도가 높아지면서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디테일이 강조되었으며, 잉카풍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인도풍도 많이 보였다. 에트로(Etro)와 프라다(Prada)등의 디자이너가 잉카의 전통적인 직조패턴을 부드러운 파스텔컬러로 표현하면서 이국적인 멋을 더하였으며, 에트로(Etro)의 작품에서는 아메리칸 인디언 패브릭 패턴을 화려한 색상으로 응용한 에트로(Etro) 고유의 패턴이 함께 선보이기도 하였다. [사진 14]



미소니(Missoni)

2004 F/W Milano
아프리카풍



에트로(Etrot)

2004 F/W Milano
아프리카풍



모스키노(Moschino)

2004 F/W Milano
중국풍

[사진 15] 2004 F/W 시즌 대표적인 에스닉패션 유형의 작품

2004년 F/W시즌에는 다시 어두워진 컬러들이 다양한 패턴과 조화를 이루었으며 아프리카풍과 중국풍이 같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에트로(Etrot), 미소니(Missoni)등의 디자이너는 아프리카 고유의 목걸이 장식을 응용하여 현대적인 의상에 아프리카의 전통복의 느낌을 부여하였다. 모스키노(Moschino)의 작품에서는 어두운 컬러로 표현된 중국 고유의 패브릭 패턴과 중국 전통복 디테일이 사용되며 중국풍을 표현하였다[사진 15].

2004년 S/S와 F/W시즌의 뉴욕 컬렉션에서는 에스닉한 작품이 보이지 않아, 많은 에스닉 작품이 보였던 2003년 S/S, F/W 시즌과 대조적인 경향을 나타냈다.



로베르토 까발리
(Roberto Cavalli)

2005 S/S Milano
아프리카풍



조지오 아르마니
(Giorgio Armani)

2005 S/S Milano
중국풍



란세티
(Lancetti)

2005 S/S Milano
일본풍

[사진 16] 2005 S/S 시즌 대표적인 에스닉패션 유형의 작품

2005년 S/S는 에스닉 스타일의 작품이 대거 등장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밀라노와 뉴욕 컬렉션에서 모두 나타났으며 특히 뉴욕 컬렉션의 경우 2004년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에스닉 스타일의 작품이 다시 나타났다. 이 시즌에는 아프리카풍을 중심으로 일본풍, 인도풍, 중국풍, 잉카풍, 아메리칸 인디언풍의 순으로 여섯 가지의 유형이 고루 선보였다. 그 중 가장 많은 비중으로 나타난 아프리카풍을 위해 로베르토 까발리(Roberto Cavalli)와 오스카 드 라 렌타(Oscar de la Renta) 등은 아프리카 전통 소재의 패턴을 응용한 디자인을 선보였으며, 란세티(Lancetti)는 기모노의 형태가 밝고 부드러운 컬러와 실용적인 소재를 표현하였다. 한편 조지오 아르마니(Giorgio Armani)의 컬렉션에서는 중국 전통복의 디테일을 응용한 화려한 팬츠슈트를 선보이며 중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표현하였다[사진 16].

[사진 17] 2005 F/W 시즌 대표적인 에스닉패션 유형의 작품



다이안 본 퍼스텐버그
(Diane Von Furstenberg)

2005 F/W NewYork
인도풍



란세티
(Lancetti)

2005 F/W Milano
인도풍



비씨비지 막스 아즈리아
(BCBG Max Azria)

2005 F/W NewYork
인도풍

2005년 F/W시즌에는 밀라노에 비해 뉴욕 컬렉션에서 에스닉 스타일의 작품이 많은 보였다. 이 시즌에는 인도풍의 작품이 많이 선보였는데 특히, 다이안 본 퍼스텐버그(Diane Von Furstenberg)의 컬렉션에서는 인도 전통복식의 문양에서 나타나는 화려하고 섬세한 패턴이 전 시즌에 비해 다소 무거워진 색감으로 표현되었다. 또한 란세티(Lancetti)의 작품에서는 바이올렛 계열의 컬러와 오버사이즈의 목걸이 장식으로 인도풍이 표현되었으며, 그 외 비씨비지 막스 아즈리아(BCBG Max Azria)의 작품에서도 인도의 화려한 패브릭 패턴을 응용한 작품이 소개되었다[사진 17].

2001년부터 2005년에 걸쳐 전반적으로, 시즌별로는 F/W시즌보다는 S/S시즌의 컬렉션에 에스닉 유형이 주로 등장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이러한 경향은 밀라노에서 시즌별 차이가 주로 컸으며, 뉴욕의 경우는 밀라노 컬렉션에 비해 시즌별 차이가 크지 않았다.

년도별로 소개된 에스닉 작품의 수는 2001년 68 작품, 2002년 58작품, 2003

년 11작품, 2004년 7작품의 작품이 보이며 에스닉 스타일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05년 93작품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며 최근 5년의 기간 중 가장 많은 수의 에스닉 작품이 보이며 에스닉 스타일의 부활 경향을 보였다.

3) 밀라노 컬렉션과 뉴욕 컬렉션의 비교

밀라노 컬렉션과 뉴욕 컬렉션 지역별로 나타난 에스닉의 유형별 비중을 살펴 보았다. 그 결과 뉴욕 컬렉션보다는 밀라노 컬렉션에서 에스닉 작품이 2.5 배정도 많은 비중으로 나타나, 시크하고 실용적인 작품을 주로 선보이는 뉴욕 컬렉션보다는 패션과 예술작품의 조화를 표현하고 있는 밀라노 컬렉션 디자이너들이 에스닉 유형을 작품에 더 많이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6] 컬렉션별 에스닉패션 유형 특성과 디자이너

컬렉션	유형	작품수 (%)	주요 디자이너
밀라노	아프리카풍	46 (24)	Gianfranco Ferre, Max Mara, Roberto Cavalli
	인도풍	28 (15)	Alviero Martini, Etro, Blumarine
	아메리칸 인디언풍	39 (20)	Trussardi, Missoni, Roberto Cavalli
	일본풍	33 (17)	Lancetti, Antonio Marras, Etro
	잉카풍	20 (10)	Etro, Missoni, Alviero Martini
	중국풍	26 (13)	Giorgio Armani, Roberto Cavalli
계		192 (72)	
뉴욕	아프리카풍	16 (22)	Diane von Furstenberg, Oscar de la Renta
	인도풍	15 (20)	Diane von Furstenberg, Oscar de la Renta
	아메리칸 인디언풍	11 (15)	Anna Sui, Custo Barcelona
	일본풍	13 (18)	Behnaz Sarafpour, Marc Jacobs
	잉카풍	11 (15)	Marc by Marc Jacobs, Zac Posen
	중국풍	9 (12)	Oscar de la Renta, BCBG MaxAzria
계		75 (28)	
총계		267 (100)	

에스닉 유형 중에서도 밀라노와 뉴욕 컬렉션에서 모두 아프리카풍의 작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밀라노 컬렉션의 경우 아프리카풍, 아메리칸

인디언풍, 일본풍, 인도풍, 중국풍, 잉카풍의 순서로, 뉴욕 컬렉션의 경우 아프리카풍, 인도풍, 일본풍, 아메리칸 인디언풍과 잉카풍, 중국풍의 순으로 에스닉 유형의 비중이 보였다.

컬렉션 지역별로 에스닉 작품이 많이 나타나는 시즌은 밀라노와 뉴욕 컬렉션 모두 S/S시즌으로, S/S시즌에는 F/W시즌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비중의 에스닉 작품이 선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스닉 스타일의 작품을 선보이는 디자이너의 비중 역시 밀라노 컬렉션과 뉴욕 컬렉션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다. 연구 자료로 사용된 작품의 총 52명의 디자이너 중 밀라노 컬렉션의 디자이너는 34명, 뉴욕 컬렉션의 디자이너는 18명으로 밀라노 컬렉션의 디자이너들이 에스닉 이미지를 작품에 즐겨 표현하고 있었다.

밀라노 컬렉션의 디자이너 중 에스닉 이미지의 작품을 가장 많이 선보이고 있는 디자이너는 에트로(Etro), 미소니(Missoni), 로베르토 까발리(Roberto Cavalli)의 순이었다. 밀라노 컬렉션에서 에스닉 패션의 유형별로 많은 작품을 소개한 디자이너에 대한 결과는 앞서 언급한 시즌별 에스닉 패션 유형의 비중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밀라노 컬렉션의 디자이너 및 작품 비중이 뉴욕 컬렉션보다 월등히 높아 전체적인 결과에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뉴욕 컬렉션의 경우 인도 유형의 작품을 주로 선보이는 오스카 드 라 렌타(Oscar de la Renta)의 컬렉션에서 에스닉 작품을 가장 많이 볼 수 있었으며 다이안 본 퍼스텐버그(Diane von Furstenberg)는 S/S시즌에는 아프리카 유형을, F/W시즌에는 인도 유형을 선보이며 아메리칸 인디언 유형을 주로 선보이는 안나 수이(Anna Sui)와 함께 많은 비중의 에스닉 작품을 선보이는 뉴욕 컬렉션의 디자이너로 나타났다.

또한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시크하고 실용적인 작품을 주로 선보이는 뉴욕 컬렉션보다는 패션과 예술작품의 조화를 표현하고 있는 밀라노 컬렉션에서 월등히 많은 비중의 에스닉 작품이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그리고 2004년 뉴욕 컬렉션에서는 에스닉 유형의 작품이 S/S시즌과 F/W시즌에서 모두 나타나지 않으며 뉴욕 컬렉션에서의 에스닉 유형의 퇴조를 의미하는 듯 하였으나 이어지는 2005년 S/S시즌에 오히려 뉴욕에서 밀라노 컬렉션보다

많은 수의 에스닉 작품이 선보였고 이러한 경향이 F/W시즌에도 이어지며 뉴욕 컬렉션 디자이너들의 에스닉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음을 알 수 있었다.

에스닉 패션 유형별로 디자인 작품과 표현방법, 디자이너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표 7] 에스닉 패션 유형별 디자인작품과 디자이너

패션유형	패션디자인	표현방법	디자이너
아프리카풍	 2002 S/S Milano 지안 프랑코 페레	• 소재 아프리카 전통소재의 패턴 또는 자연적인 소재를 이용한 표현 • 색상 -타투를 응용한 검정, 흰색의 조화 -황토계열 • 디테일 -전통 액세서리를 소재나 장신구로 응용 -원피스 구조의 디자인 응용	• Milano -지안 프랑코 페레 -막스마라 -로베르토 까발리 -미소니 -스포츠맥스 -란세티 • NewYork -다이안 본 퍼스텐버그 -오스카 드 라 렌타 -알렉산더 헤르코비치 -안나수이
인도풍	 2005 F/W 다이안 본 퍼스텐버그	• 소재 -광택있는 실크소재 -가벼운 쉬폰소재 -섬세하고 화려한 패턴 • 색상 -붉은계열과 골드 포인트배색 • 디테일 -사리응용 원피스, 까미즈응용 셔츠	• Milano -알비에로 마티니 -블루마린 -에트로 -엠포리오 아르마니 -지안 프랑코 페레 • NewYork -다이안 본 퍼스텐버그 -오스카 드 라 렌타 -비씨비지 막스아즈리아 -마이클 코어스

아메리칸 인디언풍	 2005 S/S NewYork 안나 수이	• 소재 -깃털, 가죽등의 자연적인 소재 -거친느낌의 면,모 • 색상 -황토계열 • 디테일 -깃털과 가죽의 질감을 살린 프린지장식 -헤어밴드, 목걸이 등 액세서리 응용	• Milano -트루사디 -로베르토 까발리 -미소니 -알렌산드로 아폴롬보 -블루 마린 -스텔라 커던트 • NewYork -안나 수이 -쿠스토 바르셀로나 -제레미 스콧
일본풍	 2001 F/W 안토니오 마라스	• 소재 -광택있는 실크새틴 -섬세한 자수,프린트 -가벼운 쉬폰소재 • 색상 -파스텔 계열과 기모노디테일의 포인트 배색 • 디테일 -기모노V-넥라인 -기모노 소재패턴과 오비장식 응용	• Milano -안토니오 마라스 -란세티 -에트로 -모스키노 -막스마라 • NewYork -버나즈 사라포르 -프로렌자 술러 -마크 제이콥스 -마이클 코어스

잉카풍	 2001 F/W 알비에로 마티니	• 소재 -기하학 패턴의 프린트 응용 -거친 느낌의 모 • 색상 -검정과 흰색대비 -원색 포인트와 중간색 계열 • 디테일 -기하학 패턴의 단장식, 액세서리 -망토, 담요를 두른 실루엣과 디테일 응용	• Milano -미소니 -에트로 -알비에로 마티니 -에밀리오 푸치 • NewYork -오스카 드 라 랑타 -마크 바이 마크제이콥스 -자크 포센 -안나 수이
중국풍	 2003 S/S 로베르토 까발리	• 소재 -광택있는 실크새틴 -화려하고 대담한 자수, 프린트 패턴 • 색상 -노랑, 빨강 등의 화려한 색상 -자수, 프린트를 강조한 무채색톤 • 디테일 -차이니즈 칼라 -치파오응용 원피스	• Milano -안토니오 마라스 -조지오 아르마니 -로베르토 까발리 -모스키노 -미우 미우 • NewYork -오스카 드 라 렌타 -비씨비지 막스아즈리아 -이미테이션 오브 크라이스트

2. 에스닉 메이크업의 표현기법 유형 특성

1) 에스닉 패션 유형별 메이크업 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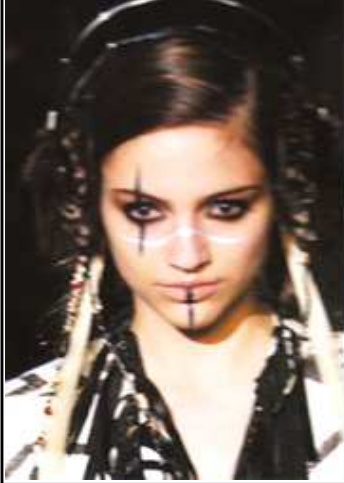
메이크업의 유형 분류를 위해 에스닉 패션 작품 총 267 디자인 중 모델의 뒷모습이 촬영된 두 작품과 안경을 착용하여 메이크업의 기법을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한 작품을 제외한 총 264 작품을 대상으로 하였다. 에스닉 패션에 연출된 메이크업을 스모키 메이크업, 소프트 스모키 메이크업, 레트로 메이크업, 아방가르드 메이크업, 내추럴 메이크업, 오리엔탈 메이크업 등 총 여섯 가지의 유형에 따라 분류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에서 에스닉 패션의 여섯 가지 유형에 따라 적용된 메이크업을 여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총 264 작품 중 소프트 스모키 메이크업이 총 172 작품으로 65%의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었다. 그 다음으로 스모키 메이크업이 76 작품에서 나타나며 29%를 나타내었으며, 나머지 네 가지의 유형은 16작품, 약 6%로 매우 저조한 비중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에스닉 패션과 조화를 이루는 메이크업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기법은 소프트 스모키 메이크업과 스모키 메이크업의 두 가지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스모키 메이크업의 표현방법인 그을린 듯한 태닝 피부 표현과 검게 강조한 아이라인 등의 기법이 에스닉한 이미지의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패션과 조화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표 8] 에스닉 패션유형별 메이크업 표현기법

n=264, 단위:작품수(%)

패션 유형	메이크업 표현기법	Milano	NewYork	패션 유형	메이크업 표현기법	Milano	NewYork
아프 리카 풍	소프트 스모키	27 (59)	15 (94)	일본 풍	소프트 스모키	24 (75)	8 (62)
	스모키	18 (39)	0 (0)		스모키	8 (25)	1 (8)
	레트로	0 (0)	1 (6)		레트로	0 (0)	0 (0)
	아방가르드	0 (0)	0 (0)		아방가르드	0 (0)	1 (8)
	내추럴	1 (2)	0 (0)		내추럴	0 (0)	0 (0)
	오리엔탈	0 (0)	0 (0)		오리엔탈	0 (0)	3 (23)
계		46(100)	16(100)	계		32(100)	13(100)
인도 풍	소프트 스모키	19 (70)	4 (55)	잉카 풍	소프트 스모키	10 (50%)	9 (82%)
	스모키	6 (22)	11 (40)		스모키	9 (45%)	2 (18%)
	레트로	1 (4)	0 (0)		레트로	0 (0%)	0 (0%)
	아방가르드	0 (0)	0 (0)		아방가르드	0 (0%)	0 (0%)
	내추럴	1 (4)	0 (0)		내추럴	0 (0%)	0 (0%)
	오리엔탈	0 (0)	0 (0)		오리엔탈	1 (4%)	0 (0%)
계		27(100)	15(100)	계		20(100)	11(100)
아메 리칸 인디 언풍	소프트 스모키	25 (661%)	10 (71%)	중국 풍	소프트 스모키	14 (54%)	7 (78%)
	스모키	13 (34%)	0 (27%)		스모키	6 (23%)	2 (22%)
	레트로	0 (0%)	0 (0%)		레트로	6 (23%)	0 (0%)
	아방가르드	0 (0%)	1 (2%)		아방가르드	0 (0%)	0 (0%)
	내추럴	0 (0%)	0 (0%)		내추럴	0 (0%)	0 (0%)
	오리엔탈	0 (0%)	0 (0%)		오리엔탈	0 (0%)	0 (0%)
계		38(100)	11(100)	계		26(100%)	9(100)

		
존 리치몬드 (John Richmond)	에트로 (Etro)	란세티 (Lancetti)
2002 F/W Milano 아프리카풍	2004 S/S Milano 잉카풍	2004 S/S Milano 인도풍

[사진 18] 스모키 메이크업

		
스포츠 막스 (Sport Max)	스포츠 막스 (Sport Max)	에트로 (Etro)
2002 S/S Milano 인디언풍	2004 F/W Milano 잉카풍	2005 S/S Milano 잉카풍

[사진 19] 소프트 스모키 메이크업

여섯 가지의 패션 유형별로 각각 사용된 메이크업 기법 역시 소프트 스모키 메이크업과 스모키 메이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에스닉패션의 아프리카 유형에서 소프트 스모키 메이크업과 스모키 메이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98%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에스닉의 이미지가 강한 아프리카유형의 패션에는 아이메이크업만을 강조한 스모키 메이크업의 기법을 통해 메이크업보다는 패션을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루엘라 (Luella) 2002 S/S Milano 아프리카풍	로베르토 까발리 (Roberto Cavalli) 2005 S/S Milano 아프리카풍	빌 브라스 (Bill Brass) 2005 S/S NewYork 아프리카풍	오스카 드 라 렌타 (Oscar de la Renta) 2005 S/S NewYork 아프리카풍
내추럴 메이크업		레트로 메이크업	

			
제레미 스콧 (Jeremy Scott) 2003 S/S NewYork 일본풍	안토니오 마라스 (Antonio Marras) 2004 F/W Milano 일본풍	버나즈 사라포르 (Behnaz Sarafpour) 2005 S/S NewYork 일본풍	모스키노 (Moschino) 2004 F/W Milano 중국풍
아방가르드 메이크업		오리엔탈 메이크업	

[사진 20] 내추럴, 레트로, 아방가르드, 오리엔탈 메이크업

한편 중국 유형에서는 레트로 메이크업의 기법이 6작품, 23%로 나타내며 다른 유형과 차이를 보였으며, 일본 및 중국 유형에서 오리엔탈 메이크업의 표현 기법보다는 역시 소프트 스모키 메이크업과 스모키 메이크업의 사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사진 18, 19, 20]은 메이크업 유형별 표현기법과 디자이너를 나타낸 것이다. 디자이너별로는 대부분의 디자이너가 소프트 스모키 메이크업과 스모키 메이크업을 비슷한 비중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그중에서도 장 프랑코 페레(Gianfranco Ferre), 에트로(Etro), 다이안 본 퍼스텐버그(Diane von Furstenberg) 등 에스닉 패션을 많이 선보이는 디자이너의 무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알비에로 마티니(Alviero Martini)의 경우 에스닉 스타일의 패션과 함께 스모키 메이크업을 주로 선보였으며 미소니(Missoni), 막스 마라(Max Mara), 란세티(Lancetti), 안나 수이(Anna Sui), 블루마린(Blumarine) 등의 디자이너 및 브랜드는 소프트 스모키 메이크업을 에스닉 스타일의 패션과 함께 자주 사용하였다.

2) 시즌별 특성분석

S/S시즌과 F/W시즌별 메이크업 유형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표 9]와 같이 여섯 가지 메이크업의 유형 중 소프트 스모키 메이크업과 스모키 메이크업의 비중이 월등히 높게 나타난 경향이 시즌별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S/S시즌에는 소프트 스모키 메이크업과 스모키 메이크업의 비중이 179작품, 93%의 비중으로 나머지 네 가지의 유형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으며, 그중에서도 소프트 스모키 메이크업의 비중이 134작품, 70%의 비중으로 45작품, 23%인 스모키 메이크업의 비중에 비해 3배 가량 높게 나타나 S/S시즌에는 소프트 스모키 메이크업 선호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F/W시즌에는 소프트 스모키 메이크업과 스모키 메이크업의 비중이 각각 38작품, 53%와 31작품, 43%로 S/S시즌과는 달리 F/W시즌에는 두 가지 유형이 큰 차이 없이 함께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9] 시즌별 메이크업 유형 분포

시즌	메이크업유형	작품수 (%)
SS	소프트 스모키	134 (70)
	스모키	45 (23)
	레트로	6 (3)
	아방가르드	2 (1)
	내추럴	2 (1)
	오리엔탈	3 (2)
계		192 (100)
FW	소프트 스모키	38 (53)
	스모키	31 (43)
	레트로	2 (3)
	아방가르드	0 (0)
	내추럴	0 (0)
	오리엔탈	1 (1)
계		72 (100)
총계		264

3) 밀라노 컬렉션과 뉴욕 컬렉션의 비교

컬렉션 지역별로도 앞의 내용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 밀라노 컬렉션에서도 소프트 스모키 메이크업과 스모키 메이크업의 비중이 179작품, 95%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중, 소프트 스모키 메이크업의 비중이 119작품, 63%의 비중으로 60작품, 32%인 스모키 메이크업의 비중보다 두 배 가량 많이 보였다.

뉴욕 컬렉션의 경우도 소프트 스모키 메이크업과 스모키 메이크업의 비중이 69작품, 96%로 높게 나타났으나, 밀라노 컬렉션보다는 소프트 스모키 메이크업의 비중이 조금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그 비중이 매우 작기는 하나, 오리엔탈 메이크업과 아방가르드 메이크업의 경우 뉴욕 컬렉션에서, 내추럴 메이크업과 레트로 메이크업의 경우 밀라노 컬렉션에서 주로 나타났다.

[표 10] 컬렉션 지역별 메이크업 유형 분포

지역	메이크업유형	작품수 (%)
밀라노	소프트 스모키	119 (63)
	스모키	60 (32)
	레트로	7 (4)
	아방가르드	0 (0)
	내추럴	2 (1)
	오리엔탈	1 (1)
계		189 (100)
뉴욕	소프트 스모키	53 (71)
	스모키	16 (21)
	레트로	1 (1)
	아방가르드	2 (3)
	내추럴	0 (0)
	오리엔탈	3 (4)
계		75 (100)
총계		264



소프트 스모키 메이크업

에트로
(Etro)
2001 F/W Milano



레트로 메이크업

조지오 아르마니
(Giorgio Armani)
2005 S/S Milano

[사진 21] 밀라노 컬렉션의 메이크업

밀라노 컬렉션에서 소프트 스모키 메이크업을 가장 많이 선보인 디자이너는 인도풍 패션과 함께 소프트 스모키 메이크업을 표현한 에트로(Etro)와 주로 아프리카풍, 중국풍의 패션과 함께 표현한 로베르토 까발리(Roberto Cavalli)로 나타났으며, 스모키 메이크업을 가장 많이 선보인 디자이너는 아메리칸 인디언풍 패션과 스모키 메이크업을 표현한 미소니(Missoni)와 주로 인도풍의 패션과 함께 표현한 알비에로 마티니(Alviero Martini)로 나타났다. 그 외 뉴욕 컬렉션에 비해 밀라노 컬렉션에서 주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 레트로 메이크업은 중국풍의 패션과 함께 연출한 조지오 아르마니(Giorgio Armani)의 작품에서 대부분 나타났다[사진 21].



스모키 메이크업

에트로
(Etro)
2004 S/S Milano

오리엔탈 메이크업

버나즈 사라포르
(Behnaz Sarafpoui)
2005 S/S NewYork

[사진 22] 뉴욕 컬렉션의 메이크업

뉴욕 컬렉션에서는 주로 아메리칸 인디언풍의 패션과 함께 소프트 스모키 메이크업을 표현한 안나 수이(Anna Sui)의 컬렉션에서 소프트 스모키 메이크업이 가장 많이 보였으며, 안나 수이(Anna Sui)의 경우 연구대상이 된 기간의 컬렉션 모든 작품에 소프트 스모키 메이크업만을 사용하는 특징을 보였다. 그리고 잉카풍과 중국풍, 인도풍의 패션과 조화를 이룬 오스카 드 라 렌타(Oscar de la Renta)의 컬렉션에서는 스모키 메이크업이 가장 많이 보였다. 그 외 밀라노 컬렉션에 비해 많이 보였던 오리엔탈 메이크업을 선보인 디자이너는 버나즈 사라포르(Behnaz Sarafpour)로 기모노 디테일의 패션과 함께 오리엔탈 메이크업을 표현하였다[사진 22].

이와 같은 메이크업의 유형분석을 통해 에스닉 패션의 유형별로 메이크업의 유형이 각각 다른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최근 5년간 밀라노와 뉴욕에서 열린 컬렉션에서 디자이너들은 에스닉 패션의 유형별로 메이크업의 유형을 달리 표현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최근 개최된 밀라노와 뉴욕 컬렉션에서는 컬렉션에 소개되는 의상에 따라 메이크업의 변화를 주기보다는 컬렉션 전반의 컨셉에 따라 메이크업의 유형을

정하여 패션과 조화를 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IV. 패션과 메이크업 제안

1. 제안 의도

본 연구 내용 결과를 바탕으로 에스닉 패션과 조화가 되는 메이크업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컬렉션 전반에 걸쳐 어떤 의상과도 잘 어울리면서 시즌의 유행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메이크업을 제시하되, 최근 국내외 패션쇼 무대 및 기타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메이크업의 표현방법인 소프트 스모키 메이크업과 스모키 메이크업의 두 가지 컨셉의 작품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에스닉이 현대 패션의 주제로 각광받고 있는 점을 감안, 에스닉 스타

일의 패션과 함께 에스닉한 이미지를 더욱 강조할 수 있는 장식효과를 부여하는 메이크업으로 에스닉 메이크업을 제안하되, 앞서 언급된 에스닉 패션의 각 여섯 가지 유형과 연출할 수 있는 메이크업을 중국, 일본, 인도, 아프리카, 아메리칸 인디언, 잉카 등의 여섯 가지 컨셉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작품 제안을 통해 앞으로의 컬렉션뿐만 아니라 다양화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관련 여러 무대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메이크업의 표현방법을 제시하며, 에스닉 메이크업 외에도 무대를 드라마틱하고도 화려하게 장식할 수 있는 창조적인 메이크업 표현에 아이디어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작품 제시

● 작품 1

가. 주제: 스모키 메이크업

나. 작품설명:

컨셉에 따라 피부톤을 밝게 하거나 어둡게 표현할 수 있으나, 매트한 질감과 약간의 인위적인 느낌의 커버력이 필요하다.

에스닉한 이미지를 가미하기 위해 볼을 크고 어둡게 과장하여 표현하였으며, 스모키 메이크업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캣 아이 표현을 위해 블랙 라이너와 펜슬로 눈의 형태를 크게 잡아 표현하고, 블랙 새도우를 넣어서 눈을 더욱 강조하였다.

인조 속눈썹과 마스카라로 강한 눈매를 극대화시킨 후, 입술은 누드톤으로 매트하게 표현하여 인위적이고 도발적인 눈의 느낌을 강조시켜 연출한다.

[사진 23] 작품 1-스모키 메이크업

● 작품 2

가. 주제: 소프트 스모키 메이크업

나. 작품설명:



맑은 피부 표현을 위해 피부톤에 맞는 파운데이션 색상으로 가볍게 발라주고 투명 파우더로 마무리한다.

눈썹은 자연스러운 이미지로 표현하고 브론즈 색상과 라이트 브라운 색상으로 아이섀도우를 넣어주고, 아이라이너와 마스카라로 눈매를 풍성하게 표현한 후 언더라인에 블랙 펜슬과 아이섀도우로 눈매에 깊이감을 더해준다.

오렌지 색상과 브론즈 색상으로 볼에 발라주고 입술은 베이지 핑크와 립글로스로 부드러운 느낌을 주어 마무리한다.

[사진 24] 작품 2-소프트 스모키 메이크업

● 작품 3

가. 주제: 에스닉 메이크업 (중국)

나. 작품설명:



화이트 스틱 파운데이션이나 크림 컬러를 이마, 콧등, 턱을 중심으로 펴 바르고, 레드크림 컬러를 눈썹과 노즈 라인을 기준으로 선명하게 바른 후 광대뼈 아래로 턱 선을 향해 자연스럽게 펴 발라준다. 눈썹은 꼬리를 올려 주듯 조금 굽게 펜슬로 그리고 크림컬러나 케익 아이라이너로 한번 더 강조하며, 아이라이너로 눈매를 감싸듯 눈초리를 길게 그려서 강조한다.

눈썹 경계와 아이라이너 경계 부분에 레드 섀도우로 한번 더 발라주어 강조시킨 뒤, 레드 펜슬로 입술라인을 또렷하게 그려준 뒤 레드 립스틱을 선명하게 바른다.

[사진 25] 작품 3-에스닉 메이크업(중국)

● 작품 4

가. 주제: 에스닉 메이크업 (일본)

나. 작품설명:



화이트 스틱 파운데이션을 얼굴, 목, 귀까지 펴 발라 두들겨서 밀착시킨다. 붉은 색상은 노즈라인, 눈 밑, 볼까지 바르며 화이트 파우더나 투명 파우더를 듬뿍 발라 매트하게 표현한다.

눈썹은 반달 형태의 곡선으로 가늘게 그린다. 눈 길이만큼 짧고 날카롭지 않은 느낌으로 약간 올려서 아이라인을 그려 강조하고 언더라인은 중심부부터 시작하여 위 라인과 연결되지 않게 약간 띄어 일자 형태로 그리며, 인라인 부분은 레드 펜슬로 메워준다. 입술은 콧방을 크기만큼 작게, 레드 컬러를 이용하여 윗입술은 가늘고 아랫입술은 도톰하게 그려준다.

[사진 26] 작품 4-에스닉 메이크업(일본)

● 작품 5

가. 주제: 에스닉 메이크업 (인도)

나. 작품설명:



대표적 이미지 중의 하나인 그을린 듯한 피부 연출을 위해 오클 계열과 다크 브라운 컬러 파운데이션을 이용하여 퍼 발라주고, 오렌지 컬러와 다크 브라운 파우더로 유분을 제거해 매트하게 피부를 표현한다.

눈썹은 블랙 펜슬과 새도우를 이용해 진하고 두껍게 표현한다. 눈화장은 블랙 펜슬과 아이라인을 이용해 눈의 형태를 어둡게 강조하며, 오렌지 색상과 다크 브라운 색상의 아이새도우를 발라주어 눈매를 강조시킨다.

이마에 인도의 고유문양을 그리거나 빈디(bindi) 액세서리를 붙여준다.

입술은 약간 크게 형태를 잡아서 그려준 후 브라운과 오렌지 색상의 립컬

러를 발라 마무리한다.

[사진 27] 작품 5-에스닉 이미지(인도)

● 작품 6

가. 주제: 에스닉 메이크업 (아프리카)

나. 작품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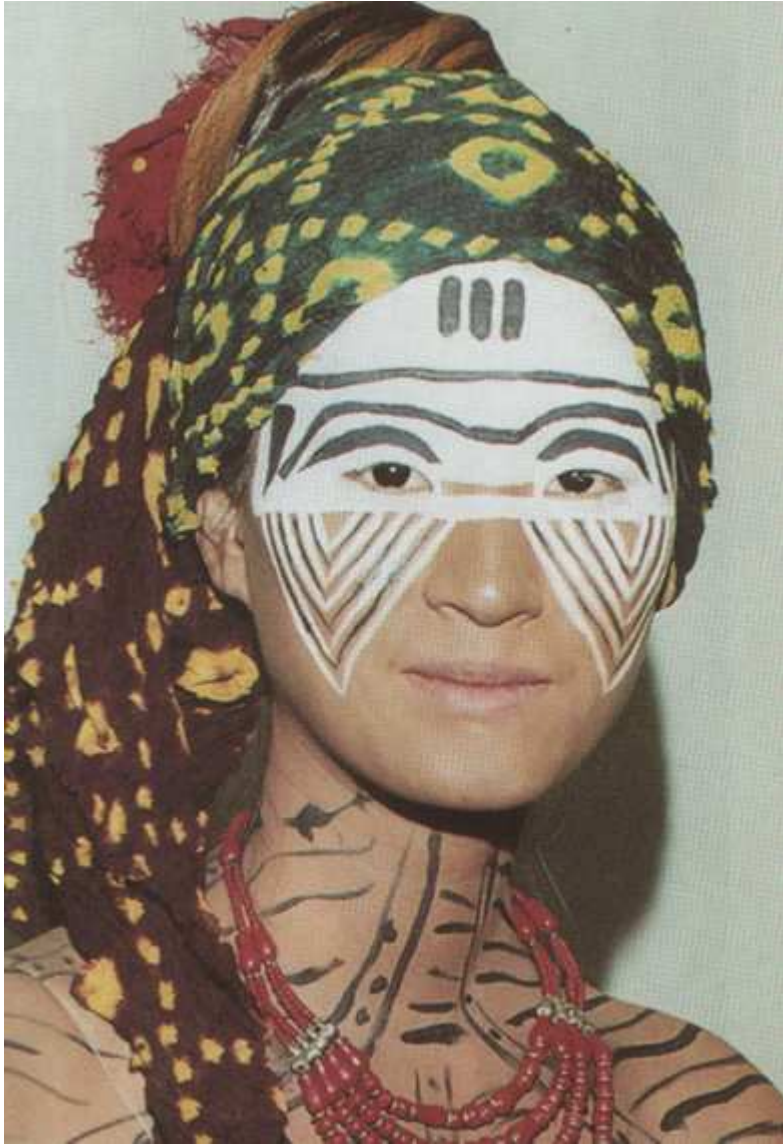
어두운 피부 표현을 위해 어두운 파운데이션을 얼굴과 몸에 연결해서 바른 후 브라운 계열의 다크 파우더로 마무리한다. 흰색 아쿠아 컬러를 이용해 이마와 눈 주변에 동물문양이나 열대나무 무늬, 그리고 여러 가지 선의 느낌으로 그려주어 표현한다.

블랙 아쿠아 컬러를 이용해 흰색 사이에 블랙선을 그려 강조시키고, 목과 가슴 부분에도 토속적 느낌을 위해 아프리카와 타투와 같은 느낌이 들도록 블랙 아쿠아 컬러로 그려 넣어준다.

[사진 28] 작품 6-에스닉 이미지(아프리카)

● 작품 7

가. 주제: 에스닉 메이크업 (아메리칸 인디언)



나. 작품설명: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피부톤을 표현하기 위해 다크브라운 크림 파운데이션을 이용하여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펴 바른다. 이때 얼룩없이 잘 펴 발라 갈색계열의 피부톤을 자연스럽게 연출하도록 한다.

피부톤이 완성되면 유성이나 수성의 페인팅 제품을 이용하여 아메리칸 인디언 특유의 기하학적인 문양이나 상징들을 페인팅 하듯 그려준다.

눈썹은 일자 느낌으로 그려주되 조금 짧고 눈썹 꼬리를 아래로 쳐지듯 표현하여 원주민의 느낌을 살린다.

아이라인은 홀부분과 언더부분에 길게 빼듯 과장하여 그려주고 레드계열의 립스틱으로 입술을 완성하여 마무리한다.

[사진 29] 작품 7-에스닉 이미지(아메리칸 인디언)

● 작품 8

가. 주제: 에스닉 메이크업 (잉카)



나. 작품설명:

피부톤을 어둡게 표현하기 위해 브라운 톤의 파운데이션으로 피부톤을 정리한 후, 붉은 색상의 유성 컬러로 반원을 그리듯 코 윗선으로 페인팅한다.

턱주변은 한톤 더 어둡게 표현하고 눈썹은 강조하지 않으면서, 눈매를 강조하기 위해 블랙 색상의 라인으로 눈 위, 아래 라인을 또렷하게 표현한다.

잉카를 대표하는 기하학적이면서도 복잡한 선으로 구성된 문양을 포인트 부분에 그려준 뒤, 입술은 피부톤과 연결되어 보이도록 튀지 않게 갈색 계열로 그려준다.

[사진1-30] 작품 8-에스닉 이미지(잉카)

V. 결 론

다변화된 사회와 매체의 발달, 자연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인간 본성 등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 현대 패션의 미적 기준은 서양중심의 문화에서 원시적



이거나 익숙지 않은 다른 문화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에스닉 이미지는 토털패션을 표현하기 위한 중요한 미적기준으로 각광을 받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에스닉 이미지의 패션과 메이크업의 유형을 분석하고 에스닉 패션에 표현된 에스닉 메이크업의 표현기법을 살펴보았으며, 에스닉 패션을 위한 메이크업 작품을 제시하였다.

2001년 S/S부터 2005년 F/W까지 밀라노와 뉴욕에서 열린 프레타 포르테 컬렉션의 작품 중 에스닉 이미지의 작품 총 267 디자인을 분석하여 에스닉

패션에 관한 개념을 고찰하고 에스닉 패션을 유형별로 분석하였으며, 시즌별, 컬렉션 발표 지역별 에스닉 패션의 특성과 유형별 에스닉 패션 추이를 살펴 보았다. 또한 에스닉 패션에 표현된 메이크업의 유형을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컬렉션에서 에스닉 패션을 표현하는 예술적 이미지 표현의 한 형태로서의 메이크업 작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에스닉 패션 이미지를 아프리카, 인도, 아메리칸 인디언, 일본, 잉카, 중국의 여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에스닉 패션 유형 중 아프리카풍의 작품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 아메리칸 인디언, 일본, 인도, 중국, 잉카 유형의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시즌별로는 F/W시즌보다는 S/S시즌에 에스닉 패션 작품이 많이 소개되었으며 S/S시즌에는 아프리카 유형이, F/W시즌에는 인도 유형의 작품이 가장 많이 소개되었다.

밀라노와 뉴욕의 컬렉션을 비교해보면,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시크하고 실용적인 작품을 주로 선보이는 뉴욕 컬렉션보다는 패션과 예술작품의 조화를 표현하고 있는 밀라노 컬렉션에서 월등히 많은 비중의 에스닉 작품이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둘째, 메이크업은 표현기법에 따라 소프트 스모키 메이크업과 스모키 메이크업, 레트로 메이크업, 내추럴 메이크업, 아방가르드 메이크업, 오리엔탈 메이크업으로 분류하였다.

에스닉에 표현된 메이크업 표현기법은 에스닉한 이미지로 표현되기보다는 컬렉션 전체의 패션과 어울리는 이미지가 주로 사용되었다.

컬렉션에서는 소프트 스모키 메이크업과 스모키 메이크업이 다른 기법에 비해 월등하게 큰 비중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향은 시즌별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F/W시즌보다는 S/S시즌에 소프트 스모키 메이크업이 스모키 메이크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컬렉션별로도 밀라노와 뉴욕 컬렉션에서 동일하게 모두 소프트 스모키 메이크업이 스모키 메이크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에스닉 패션을 더욱 돋보이게 할 메이크업의 표현기법으로, 소프트 스모키 메이크업과 스모키 메이크업 그리고 에스닉한

이미지를 더욱 강조하는 방법으로 중국, 일본, 인도, 아프리카, 아메리칸 인디언, 잉카의 각 유형별 에스닉 메이크업 작품을 제안하여 보다 생동감있는 컬렉션의 메이크업 아이디어로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메이크업의 표현기법에서 스모키 메이크업으로 분류되는 이미지를 본 연구에서는 내추럴 메이크업에 가까운 소프트 스모키 메이크업과 강하고 깊은 눈매를 강조하는 스모키 메이크업으로 분류하여, 앞으로 컬렉션이나 일상생활의 패션과 함께 연출될 수 있는 스모키 메이크업의 두 가지 기법을 처음으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그 대상을 2001년 S/S시즌부터 2005년 F/W시즌까지의 최근 5년간의 자료에 한정하였으며, 해외 컬렉션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국내 컬렉션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앞으로 꾸준한 연구를 통해 시즌별 국내외 컬렉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보다 넓은 범위의 자료 확보를 통해 앞으로의 컬렉션 경향을 예측하고, 토털패션으로서의 패션과 메이크업의 연관관계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參 考 文 獻

국내문헌

[단행본]

- 공미란·안인숙(2003), 패션디자인, 서울:예학사
- 김종복(1968), Fashion Word Collection Vol.2, 서울:도서출판 시대, p.102
- 두산동아편집부(2006), 동아프라임영한사전, 서울:(주)두산동아
- 라사라패션 편집부(2002), 패션용어사전, 서울:라사라패션정보
- 이옥순(2002), 인도에는 카레가 없다, 서울:책세상
- 이학재(1994), 분장의 길, 서울:자유문화사
- 이희승(2003), 국어대사전, 경기: 민중서림

- 정삼호·김영숙(1998), 현대 패션모드, 서울:교문사
- 정홍숙·정삼호·홍병숙(1998), 현대인과 의상, 서울:교문사
- 채금석(1995), 현대복식미학, 서울:경춘사

[논문]

- 간문자(1996), 1960년대 저항 패션이 민속풍 패션에 미친 영향, 한국복식학회, 제30호
- 김경순(2000), 세기말에 나타난 메이크업의 경향, 한국미용학회지, 제6호
- 김교회(2003), 패션경향에 따른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대구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문숙(1981), 우리복식에 중국복식이 미친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19호,
- 김성희(2002), 에스닉 스타일을 응용한 아트메이크업 작품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진.한명숙(1998), 1990년대의 패션과 메이크업 경향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제6권
- 박성희(2006), 아프리카 에스닉 이미지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종희(1995), 1990년대 패션에 나타난 복고풍에 관한 고찰-1960년대 mode의 재현을 중심으로, 계명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진희(1994), 20세기 후반 fashion에 나타난 African primitivism에 관한 연구,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봉하(2004), 1990년대 이후 에스닉 룩의 폐쇄형과 개방형의 시기각적 연구, 한국복식학회, 제54권 4호
- 손영미.이혜정(2005), 헤어,메이크업 디자인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제7호
- 양숙희.장미숙(1999),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네오아방가르드 경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 양취경.김경란(2005), 다문화시대 하이브리드 패션과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제13호
- 엄윤경(1994), 북아메리카 민속의상의 수술 장식을 응용한 복식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민경. 한명숙(1998), 북아메리칸 북아메리카의 복식재료에 나타난 유럽적 요소, 복식문화연구, 제6호
- 이상례(1994), 현대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동방풍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영자·김선영(2000), 현대 패션에 표현된 New Orientalism에 관한 연구, 복식학

회, 제50호

- 장현숙(2004), 패션쇼에 나타난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소영(1995), 현대 패션에 나타난 에콜로지 경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미실(2002), 19세기 후반 전환시대 Navajo 북아메리카직물의 고찰, 대한가정학회, 제40호
- 조영아·유혜영(2001), 20세기 동양모드의 변화 연구, 한국복식학회지, 제51호
- 진경옥, 이민정(2003), 오리엔탈리즘을 응용한 유니폼 디자인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제5호
- 최영옥(2005), 현대 에스닉 패션(Ethnic Fashion)의 특성 분석, 한국의류산업학회지, 제7권 5호
- 최은지(2000), 아방가르드 패션을 위한 메이크업 연구,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해주.안은경(2003), 국내 복고주의 패션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 제53권 2호
- 한소원.김영인(1999), 1990년대 초반 복식유행에 나타난 에콜로지 이미지,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외국문헌

[단행본 및 논문]

- B.B.Baines, Fashion Revivals: form Elizabethan age to the Present Day, London: B.T.Batsford, 1981
- Berebice Geoffroy-Schneider, Ethnic Style, Kentucky:Assouline, 2001
- Karl Gröning, Decorated Skin, London:Thames & Hudson, 2002

[정기간행물]

- Fem Collection
Vol.1: 2002 S/S
Vol.3: 2002-3 A/W
Vol.5: 2003 S/S

- Vol.7: 2003-4 F/W
- Vol.9: 2004 S/S
- Vol.11: 2004-5 F/W
- Vol.13: 2005 S/S
- Vol.15: 2005-6 F/W
- Vol.17: 2006 S/S
- Vogue Italy
 - Vol.605: Gen.2001
 - Vol.617: Gen.2002
 - Vol.630: Feb.2003
 - Vol.635: Lug.2003
 - Vol.642: Feb.2004
 - Vol.665: Gen.2006

[기타:]

- www.cft.or.kr
- www.firstview.com
- www.naver.com
- www.samsungdesign.net
- www.yahoo.com

ABSTRACT

A Study on the Typical Characteristics of Ethnic Fashion and Makeup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Milano and NewYork
Prêt-à-Porter Collections 2001~2005-

Oh, Se-Hee

Major in Fashion Design

Dept. of Fashion Design Planning

Graduate School of Arts
Hansung University

Nowadays, the concept of the ethnic look is popular in modern culture. The western culture was the basic beauty in a total fashions but it is shifting to each ethnic beauty. Because we face many different culture and massive multimedia, this can make us easy to understand other cultures. Furthermore, these complicated and mass media to fill us to return the nature.

Ethnic fashion is coming from a yearning of different other cultures. It is expression of the particular shape and colors in the non western traditional customs.

This study is understanding a basic concept of many other ethnic's customs and dividing their customs by regions, image, seasons, and shapes.

From 2001 S/S to 2005 F/W on the 260 collections in Milan and New York fashion show. From this study make up arts is expressing their image to each arts in their collections.

First, the shapes of ethnic fashion's collections are Africa, India, American Indian Japan, Inca and Chinese collections. Among these collections, the first volume is Africa collections the second is American Indian and others are Japan, India, China and Inca. This ethnic fashion shows are much more in the S/S season than F/W seasons.

During this different season, African ethnic fashion show is more popular in the S/S season. Indian fashion shows are more popular in the S/S season. In the comparison of the Milan and New York collections feature with the harmony of the current fashion arts than the New York fashion is seek and practical arts.

Second, make up arts usually used for the tools of their collections become more understanding one. But in the recent fashion shows, make up Art is used for the image for the designer's collections rather than a expression of its ethnic feature. The art of the expression is classified with the soft-smoky, smoky, ancient, natural and avant -garde oriental make up. Among the different make up art, soft smoky and smoky make up are more used than others. These trends are commonly used in all seasons.

From this results are same in the Milan, New York fashion shows.

Third, the make up Arts are used for back up the tools for each ethnic fashions representing the Soft-smoky and smoky make up.

These make up art can commonly used in China, Japan, India, Africa, American Indian and Inca fashion show, or art collections. From these results it shows that make up arts should be studied continuously and forecasting the fashion trends through the many data.

The relation with the total fashion and make up arts should be continued.